

안용복사건과 돛토리 번*

박병섭**

<차 례>

1. 서론
2.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
3.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4.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겐로쿠 시기에 있었던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 그에 대한 평가를 한일 양국의 사료를 함께 고려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안용복 사건은 한일 양국에 걸친 사건이므로 기존 한일 양국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안용복 연구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로 파생한 다케시마 일건(Takeshima-ikken)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안용복의 제1차 도일 이후 울릉도 도항은 적어도 3회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제1차 도일 이후 총칼의 위협으로 체포되어

* 본 논문은 鳥取短期大學 『北東アジア文化研究』29호(2009)에 발표한 「安龍福事件と鳥取藩」의 기필 번역임을 밝혀둔다.

** 日本 竹島=獨島問題研究NET대표

일본으로 여행되어 간 경험이 계기가 되어 1694~5년경에 울릉도에서 상당히 경계를 하여 일본배의 습격에 대비하고 무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693년의 1차 도일 때의 진술에서는 독도=자산도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하여 단지 큰 섬으로 말하고 있으나, 1696년 제2차 도일에서는 울릉도-독도 두섬의 위치 및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일차 도일 이후 거듭 울릉도-독도로 도해를 한 경험에 의해 확실한 인식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을 내쫓았다는 안용복의 진술은 1696년이 아니라 1695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용복 기록과 관련되는 조선 역사서의 신뢰성 여부를 고찰해보면,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 등은 안용복의 호언장담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관찬서인 『숙종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변례집요』 등은 그 때마다 안용복 공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안용복의 장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쓰시마번과의 어려운 교섭을 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숙종실록』과 동시대의 관찬서는 안용복 사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주제어 : 안용복 사건, 다케시마 일건, 겐로쿠시기, 돛토리번

1. 서론

일본의 겐로쿠(元祿, 1688-1704) 시기에 조선의 어민 안용복은 두 번이나 일본에 왔는데, 그의 언동은 오늘의 독도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반대라 할 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독도문제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알려진 신용하(愼鏞廈)는 『조선실록』에 실린 안용복의 공술을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인

서, 그를 독도의 수호자로서 높이 평가했다.¹⁾ 이에 대해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안용복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하면서, 그의 자기정당화를 시도한 공술이 실록에 그대로 받아들여져 그에 대한 영웅상이 형성되었다고 평하였다.²⁾ 또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는 “한국과 북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안용복 연구는 일본에서 귀국한 후 취조한 비변사에서의 공술 내용을 기록한 『조선실록』에만 의존하고 있고, 상대측인 돛토리번(鳥取藩)의 사료(史料)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³⁾고 한국을 비판하는 한편, 일본의 ‘일국주의사관(一國主義的史觀)’도 똑 같이 비판했다. 사실 한국의 연구는 일본의 역사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일본의 연구도 조선 역사서를 골고루 조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안용복 사건은 조일 양국에 걸친 사건이기 때문에 양국의 역사서를 충분히 대조하여 비로소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런 종래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안용복사건이나 그로 인해 파생한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즉 ‘울릉도 쟁계(鬱陵島爭界)’를 검증하기로 한다.

2.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

(1) 안용복의 피랍

1693(元祿6)년 봄에 울릉도로 출어한 조선 어민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 어선에 의하여 돛토리 번으로 연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른 바 안용복의 제1차 도일사건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교섭

1) 신용하: 『한국의 독도 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0), 9쪽.

2) 下條正男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 2007.9月, p.99.

3)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p.9 (번역 『獨島와 竹島』 제이엔씨, 2005, p.22.)

‘다케시마 일건’, 조선에서 말하는 ‘울릉도 쟁계’가 시작됐다. 이 교섭이 다케시마 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에도(江戸)시대 울릉도가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린 까닭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오늘의 독도는 당시에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다만 다케시마라고 쓸 때는 인용문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가리키고, 마쓰시마는 오늘의 독도를 말한다.

안용복을 돛토리 번으로 연행한 자는 요나고(米子)의 상인 오야(大谷, 大屋)가의 사공이었다. 일찍이 오야가와 무라카와(村川)가는 다케시마 도해의 허가를 에도 막부(江戸幕府)에게 신청했었다. 도해 허가는 막부로부터 돛토리번 태수에게 1625년 경 내려졌다. 이 허가는 양 가문이 ‘이번에’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코 영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양 가문은 매년 울릉도로 출어를 하고 있었다.

오야, 무라카와 양 가문은 다케시마에서 전복을 따거나 느티나무를 베고 마쓰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그런 도해가 약 70년간 평온하게 이어졌다. 울릉도는 조선정부가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쇄환 정책을 펴고 있었으므로, 거기서 양국의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도해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어민들도 자연의 혜택이 풍부한 울릉도에 주목하여 이 섬에서 은밀히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다. 드디어 1692(숙종 18)년 조선의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무라카와가 도해선이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무라카와가는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한 채 귀국하여, 이 전말을 돛토리번에게 호소했다. 돛토리번 『히카에쵸우(控帳)』에 의하면 돛토리번이 “월번 로우주우(月番老中)⁴⁾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에게 여쭙었더니, 조선인이 그 섬에서 돌아간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⁵⁾라는 것이었다.

4) 에도시대, 정치의 실무는 도쿠가와 장군에 직속되는 4, 5명의 로우주우(老中)가 매월 교대로 맡았다. 당번인 로우주우는 한 명으로, 월번 로우주우(月番老中)이라 불렀으며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5) 『히카에쵸(控帳)』元祿5(1692)년 5월 10일.

다음 해 오야가가 다케시마로 갔더니 역시 조선 사람이 와 있었다. 그 때문에 양 가문은 2년 계속해서 수확이 없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오야가 사공은 인질로 조선 사람 두 명을 붙잡아 돛토리번으로 납치를 했던 것이다. 이 납치 사건을 조선의 관찬서인 『숙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⁶⁾

계유년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피어내 잡아서 가 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굴진중(橋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 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했는데, 그 서신(書信)에 이르기를,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 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해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했다.

『숙종실록』에서는 안용복·박어둔 두 사람이 처음부터 울릉도를 향해 도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어둔은 귀국한 후 동래부(東萊府)에서 심문을 받았을 때 “울진(蔚珍)에서 삼척(三陟)을 향하다가 표류(漂流)를 하여 이른 바 죽도(竹島)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⁸⁾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박어둔 등이 조정의 해금정책을 지키지 않고 출어했기 때문에, 그 죄를 모면하기

6) 『肅宗實錄』肅宗20(1694)年2月23日.

7) 『竹島紀事』에는 大差使正官·多田與左衛門의 이름으로 나온다.

8) 『邊例集要』卷17「蔚陵島」條, 1694年1月

위해서 표류했다고 말한 것 같다. 그 당시 조선의 각지에서 울릉도로 슬며시 나가는 배가 있던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을 좌의정 목래선(睦來善)이 이렇게 말했다.⁹⁾

경상도 연해의 어민들은 비록 풍파 때문에 무릉도(武陵島)에 표류했다고 칭하고 있으나, 일찍이 연해의 수령을 지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 바닷가 어민들이 자주 무릉도와 다른 섬에 왕래하면서 대나무도 베어오고 전복도 따오고 있다 했습니다. 비록 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더러 이익을 취하려 왕래하면서 어채(漁採)로 생업을 삼는 백성을 일질 금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저들이 기왕 엄히 조항을 작성해 금단하라고 하니 우리 도리로는 금령을 발해 신칙하는 거조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동해 연해의 수령은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무릉도에 자주 출어하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안용복 등이 처음부터 전복을 따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무릉도에 왕래한 것은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공술에서도 뒷받침된다. 훗날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은 돛토리번에서 나가사키(長崎)로 보내져 취조를 받았는데, 안용복은 쓰시마번의 취조에서 출항의 목적을 “우리가 그 섬(울릉도)에 건너간 것은 전복이나 미역이 굉장히 많다고 듣고 벌이를 위해 건넌습니다. 유선(類船)도 그렇습니다.” 라고 공술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출어한 자는 안용복 일행만이 아니었다. 그는 유선인 “전라도 순덴이란 곳의 배”와 “경상도 가토쿠란 곳의 배”도 울릉도에 4월 5일에 왔다고 말했다.¹⁰⁾ 그 해에 조선인이 울릉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요나고(米子)의 상인인 오야 가문의 사공의 상세한 증언에서도 뒷받침된다.¹¹⁾

안용복은 쓰시마번의 심문에서 도해의 일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것에 따르면 안용복 등은 1693년 3월 15일에 울산을 출항하고,

같은 날에 ‘부이카이’에 도착해, 그 곳을 25일에 출발, 같은 날 영해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27일에 바깥 바다에 나가고, 같은 날에 무릉도(다케시마)에 도착했다고 구술했다. 그 섬에서 전복 등을 따던 중에 일본에서 출어하러 온 오야 가문의 사공에 의해 연행되었다. 그 경위를 안용복은 이렇게 말했다.¹²⁾

우리들이 그 섬(울릉도)에 있었을 때 조그마한 집을 만들고 그 집에 바크토라히라는 자를 남겼는데 4월 17일에 7,8명이 탄 일본 배 한척이 나타나 그 집에 와서 바크토라히를 잡아 작은 배에 태우고 집에 둔 조그마한 보따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안요구가 거기에 가서 안된다고 말하고 바쿠토라히를 육지로 데려오기 위해 작은 배에 뒀습니다. 바로 배가 뒀습니다. 두 명 모두 본선에 실리자 재빨리 출선했습니다. 오키국에 같은 달 22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안요구(안용복)는 일본인에게 잡힌 바쿠토라히(박어둔)를 육지로 데려오려고 일본인의 배에 뒀으나 배는 그냥 떠나 버렸기 때문에 둘 다 본선에 옮겨져 일본에 연행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을 안용복은 4월 17일이라 공술했지만 그들을 연행한 오야 가문의 사공 구로베에(黒兵衛)와 히라베에(平兵衛)는 4월 18일의 일이라고 하여 요나고로 귀착한 후 아래와 같은 「오야 규우에몬 사공 구상 각서(大屋九右衛門船頭口上覺)」를 돛토리번에 제출했다.¹³⁾

(4월) 18일에는 소선(小船)에 수부(水夫) 다섯 명과 우리 두 명, 이상 일곱 명이 타고, 서쪽 포구에 가보았지만, 외국인이 보이지 않았

9) 『備邊司謄錄』 肅宗19(1693)年11月14日

10) 『竹島紀事』 元祿6(1693)年9月4日

11) 「作恐口上之覺」 『大谷家古文書』, 거의 같은 내용이 『竹島之書附』에도 있다.

12) 전계. 我々彼嶋ニ罷在候内 小屋を掛 小屋之番ニハクトラヒと申者殘置候處ニ四月十七日ニ日本船一艘參り 天間ニ七八人乘候而右之小屋ニ參バクトラヒを捕 天間へ乗せ 尤小屋ニ置候平包壹取乗せ罷出候付 アンヨグ其所ニ參 斷申 バクトラヒを陸江揚可申与存 天間ニ乘候へハ 早速船を出し兩人共ニ本船ニ乗せ早速出船仕 隱岐國ニ同廿二日ニ罷着申候 其間者洋中ニ罷在候

13) 「元祿六年 竹島より伯州に朝鮮人連返り候趣, 大屋九郎右衛門ママ船頭口上覺」 『鳥取藩史』 第6卷, P 469, 『因府歷年大雜集』

기 때문에, 다시 북쪽 포구로 가보았더니, 외국 배 1척이 정박해 있고, 임시로 작은 집을 만들고 있었고, 거기에는 외국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집 안을 보았더니, 전복과 미역을 많이 거두어 놓았기에, 그 외국인에게 사정을 물어보았으나, 통역이 없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 외국인을 배에 태우고, 오펜구라는 곳을 찾아갔더니, 외국인 열 명 정도가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말이 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배에 태우고, 전에 북쪽 포구에서 태웠던 외국인을 배에서 내리고, 그 외의 한 사람, 모두 두 외국인을 태우고 그 사정을 물었더니, 통역이 말하기를 3월 3일 이 섬에 고기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배는 몇 척인가 물었더니, 세 척에 42명이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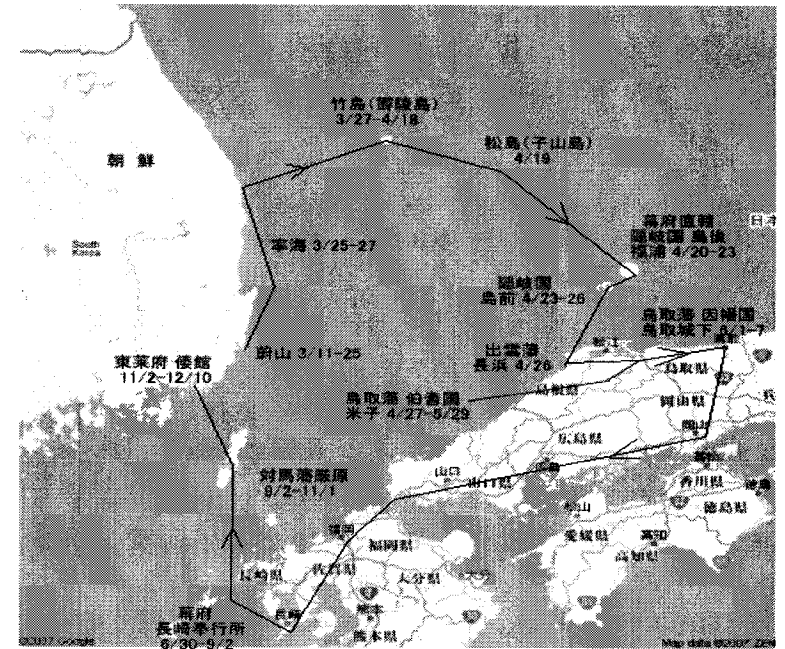
다케시마는 거친 해변이기 때문에, 이쪽의 작은 배는 불안정합니다. 두 명의 외국인을 태우고 원래의 배(큰 배)로 돌아왔습니다. 앞의 외국인을 데리고 돌아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도 이 섬에 외국인이 있어, 다시 이 섬으로 건너와 어업을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야단치고 협박하면서 여러 번 말했는데도, 또 금년에도 외국인이 어업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섬에서 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성가신 줄은 압니다만, 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외국인 두 사람을 데리고, 4월 18일에 다케시마를 떠나, 오키국(隱岐國)의 후쿠우라(福浦)에 20일에 도착했습니다……

안용복의 증언은 연행된 시점에서 4개월 이상이나 지나서 행해진 것에 비해 사공의 증언은 불과 10일 후의 일이었으므로, 날짜에 관해서는 사공의 증언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 연행사건에 대해서 박어둔도 동래부에서 비슷한 공술을 하였다. 『변례집요』에 의하면 그는 “왜인 7, 8명이 갑자기 와서 배에 태워 우리를 잡아갔다.” 14)고 말했다. 그런데 7개월 후 경상감영(監營)은 박어둔 등 두 사람이 총칼로 위협을 받아 잡혔다고 하는, 아래와 같은 보고를 조정에 올렸다.15)

(박어둔 등은) 표류해 무릉도에 이르렀다. 김덕생(金德生)등 여섯 명은 상륙해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박어둔 등 두 사람이 아직 하선하기 전에 왜인 여덟 명이 배에 와서, 도검(刀劍)이나 총으로 위협해 잡아 떠났다.

그 당시 일본의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의 배는 강치 사냥을 위해 항상 돛토리번에서 총 일곱 자루 정도를 빌리고 있었다.16) 그 총이나 칼로 위협받아 안용복 등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판1. 안용복의 제1차 도일 (1693년) 행적



(2) 안용복이 가까이에서 본 독도

안용복은 오야 가문의 배로 연행 당해 오키도로 갔을 때 그는

14) 『邊例集要』 卷17 「蔚陵島」 條, 1694년 1월 「倭人七八名 不意中乘船來到 執捉矣身」
15) 전개, 1964년 8월

16) 『控帳』 元祿6(1693)年1月19日

오늘날의 독도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94년 1월에 동래부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¹⁷⁾

안용복의 공초 안에 산형과 초목 등에 관한 말은 박어둔의 말과 한결 같은데, 끝에 “제가 잡혀 (백기주로) 들어올 때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저녁을 먹고 난 뒤 섬 하나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도(竹島)에 비해 자못 컸다” 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안용복 등이 납치된 섬 이름이 竹島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섬 이름을 안용복이 그대로 말했을 뿐이며 안용복은 그 섬(울릉도)을 무릉도라 부르고 있었다. 그 섬에서 배로 하루 정도 걸리는 떨어진 곳에 안용복이 큰 섬을 보았다는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박어둔은 이때에 배 멀미를 앓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섬을 보지 못해 ‘다른 섬은 없었다.’ 고 구술했다. 안용복이 보았다고 하는 이 섬이야말로 오늘날의 독도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당시 오야·무라가와 양 가문의 배는 다케시마에 왕복하는 길에 항로의 안표인 마쓰시마(독도)를 경유하는 것이 통례였으며, 더군다나 울릉도에서 일본 방향으로 배로 하루정도 떨어진 섬은 독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 때 오야 가문의 배가 마쓰시마에 들렀던 것은 『인푸 역년 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에 “새벽 마쓰시마라는 곳에 도착했다.”¹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마쓰시마에 들렀던 것이 새벽으로 되어 있어 안용복이 말한 “저녁 식사 후”와 시간이 맞지 않지만, 그것은 기억이 틀렸거나 필기를 잘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안용복의 공술에서 “다케시마에 비해 굉장히 크다” 라는 표현은 반드시 독도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과장

된 표현이었으리라 생각 된다. 일찍이 시모조우는 그러한 ‘큰 섬’은 오키도 밖에 없다는 이유로 안용복이 본 섬은 독도가 아니고 오키도라는 설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시모조(下條)는 최근에 그 설을 철회했는지 안용복이 본 섬은 울릉도의 바로 근처에 있는 ‘죽도(죽서)’라고 주장을 바꾸었다.²⁰⁾ 시모조는 그 이유로 『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元祿6년 11월 1일)에 기록된 안용복의 다음 증언 중에 ‘동북’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던 것이다.

인질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당시 질문 했을 때 대답한 것으로 “이번에 나간 섬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번에 나간 섬의 동북에 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머물던 중에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란 섬에 대해서는 아직껏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질의 주장은 허실을 가리기 어려우니 참고로 아뢰니다. 그 쪽에서 잘 판단해 들으십시오.

시모조는 안용복이 어렵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울릉도 저동에서 볼 때 동북에 있는 섬은 죽도(죽서)밖에 없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나침반이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해상의 방향이 틀리기 쉬운 것은 당연하다.²¹⁾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밤에는 먼 섬이 보이지 않고, 낮에는 대략의 방향을 알 뿐이다. 더군다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울릉도 해변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어서 독도의 방향을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는 가장 믿기 어려운 ‘방향’에 의거하고, 보다 신뢰성이 높은 증언인 ‘하루의 거리’를 무시했다. 이처럼 마음대로 자료를 취사선택한다면 어떠한 결론도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결

17) 『邊例集要』卷17「靑陵島」條, 1694년 1월

「安龍福招內 山形草木辭錄一樣 而末端良中 矣身被捉入去之時 經一夜 翌日晚 食後 見一島在海中 比竹島頗大云々」

18) 『因府歷年大雜集』元祿5(1692)年7月24日, 元祿5年는 元祿6年의 잘못.

19) 下條正男, 「竹島問題考」『現代コリア』1966年5月號, P 62.

20) 島根県竹島問題研究會, 『竹島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2007, P 4.

21) 안용복의 제2차 도일 때 오키의 번소(番所)가 안용복 배에 실린 소지품이나 장비를 자세히 검사했는데 그 속에 나침반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안용복이 말한 ‘큰 섬’에 대해 다가와 고쵸(田川孝三)은 오늘의 독도라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C) 안용복 등은 울릉도의 동북에서 실제로 두 번 목격한 섬을 우산도라 들고, 그 거리는 대체 하루의 노정이요 큰 섬이라고 한 것이다.…… (C)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개 이 조건에 맞는 것으로는 다케시마(리안쿠루)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즉 우산도는 이 다케시마에 비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²²⁾

다가와는 안용복이 말하는 ‘큰 섬’은 “우루친도에서 동북으로 희미하게 보인다.”²³⁾라고 하는 ‘부룬세미’에 해당하며, 메이지(明治)시대에 리안쿠르라고 불리던 섬, 즉 오늘의 독도라고 결론 지었던 것이다.

(3) 오키국(隱岐國)에서의 안용복

1693년 4월 20일, 일본의 오야 가문의 배에 의해 연행된 안용복 등은 오키도 후쿠우라(福浦)에 도착했다. 도착한 날을 『다케시마 기사』는 안용복의 공술에 따라 4월 22일이라 했지만, 오야 가문의 사공은 20일이라고 했으므로 20일이 옳다고 생각된다. 오키도는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해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섬인데 거기에는 도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사(神社)까지 세워졌다. 그 당시 오키국은 에도 막부의 직할지였다. 오키국의 번소(番所, 관아)에서 안용복과 그를 연행한 오야 가문의 사공들은 취조를 받았다. 번소는 사공들에게 조선인을 연행한 경위를 써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사공들은 조선인에게 직접 물으라고 하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번소도 이를 납득하고 안용복 등을

22) 田川孝三, 「于山島について」 『竹島問題研究資料』 10, 島根県圖書館 소장, 1953, P 100.

23) 『竹島紀事』元祿(1693)년 5월 13일.

직접 심문하였다. 이 때 안용복이 공술한 내용이 ‘당인(唐人, 외국인) 두 사람 중 통역의 진술’로서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²⁴⁾

통역 이름은 안헨치우 나이 43
주소는 조선의 돈넨기라는 곳
하인 이름은 도라해
주소는 같은 울산의 자(者)

삼계(三界)의 샤쿠완부터 전복을 따오라는 분부를 받았는데, 어느 나라(지방)에서 따오라는 명은 없었던 듯. 작년(1692)에 온 자는 다케시마로 갔다고 들었으므로 다케시마에서 미역이나 전복을 따내고 말함. 이 두 명의 조선인이 가슴에 건 명찰의 문자는 아래와 같음…….

이 문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일본어의 통역으로 일행의 이름이나 주소, 나이, 울릉도로 나간 경위 등을 대답했다. 안용복은 그 섬에 간 목적을 샤쿠완의 명령으로 전복이나 미역을 따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 취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안용복 등의 신분을 증명하는 호패가 필사된 점이다. 그것이 후대에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島正義)가 편찬한 『다케시마고(竹島考)』나 『인푸 역년 대잡집』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 근거하여 안용복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사노비로서 성은 없고 이름은 용복(用卜)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²⁵⁾ 안용복의 개인정보가 드문 가운데 이것은 귀중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취조 후 번소는 안용복 등에게 술통을 주었다고 한다.²⁶⁾ 이로 미루어 보건데 취조는 온화하게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

24) 『因府歷年大雜集』元祿6(1693)年5月28日

‘唐人貳人の内通じ申口’

通シ 名ハアンヘンチウ 年四十三
在所 朝鮮之内 トンネンギト申候
下人 名ハトラヘ
在所 同く ウルサンノ者

三界のシャクワンより鮑取上ケ申候ニテ被仰付 何國と申指圖ハ無之由 去年參候者竹嶋へ參候様 申聞候由 竹嶋ニテ和希(布)鮑取揚申由 右貳人唐人胸ニ懸申候札之文字 左之通……

25) 田川孝三, 앞의 책, 1988, P.27

26) 4月27日付 「大谷九右衛門船頭口上書」 『因付歷年大雜集』元祿6(1693)年 5月

다. 그 후 23일에 안용복 등을 태운 오야 가문의 배는 오키의 도젠(島前)으로 가고, 도젠 출신의 어부들을 내렸던 것 같다. 26일에 그 곳을 출발해 이즈모국(出雲國)의 나가하마(長浜)로 들렀다가, 27일에 요나고에 도착했다. 그 후 안용복 등을 조사한 번소는 보고하기 위해 「조선인 구술서(朝鮮人口述書)」를 작성하여 다이칸관아(代官所)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로 온 세 척의 배 중 한 척은 3월 27일에 부산을 출항해, 그 날에 다케시마로 왔다. 그 배의 인원은 사공인 안헨치우를 비롯해 선원이나 대장·목수 등 열 명이고, 그 중 야가이 등 세 명은 작년에도 온 적이 있다. 배에는 쌀 10섬과 소금 3섬이 있었다. 다른 배에는 17명과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의 확실한 이름은 거의 모른다. 15명이 탄 배 중의 한 명은 작년에도 온 적이 있다.

이 구술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무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4) 돛토리번(鳥取藩)에서의 안용복

4월 27일 안용복 등은 돛토리번 호키국의 요나고에 도착했다. 조선인 연행에 관한 보고는 요나고(米子) 성에 체재하고 있었던 가로(家老) 아라오 슈리(荒尾修理)를 통해 번청(藩廳)이 있는 돛토리부(鳥取府)에 4월 28일에 전해졌다. 번청은 번주가 체재하는 에도의 돛토리 번저(藩邸)로 파발꾼을 보내는 한편, 에도 막부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국인을 오야 규우에몬 집에 감금시켜 야마토 조(大和組)에게 경비를 명했다.²⁷⁾ 파발꾼은 5월 9일에 에도 번저에 도착하였다.²⁸⁾ 다음 날에 번저의 기키야쿠(聞役)인 요시다

헤이마(吉田兵馬)가 막부의 최고 실무 책임자인 월번 로우주우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에게 「조선인 구상서」와 「무라카와·오야 사공의 구상서」를 가져가 이 사건을 보고하고, 사건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라카와·오야 사공의 구상서」란 앞의 「오야 규우에몬 사공 구상서」를 가리키는 것 같다. 로우주우의 지시는 13일에 에도의 돛토리 번저에 전해졌다. 그 내용은 조선인을 외국과의 통상을 다루는 나가사키 부교(奉行, 관리자)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가사키로 보내는 사자(使者)의 총수는 재작년에 이국선을 나가사키로 보냈던 때와 똑같이 하라고 로우주우는 상세하게 지시했다.²⁹⁾ 로우주우의 지시에 따라 번저는 나가사키 부교에 보낼 서한과 나가사키로 가는 사자가 가져갈 구상서를 5월 16일에 작성해, 그것들을 파발꾼으로 하여금 돛토리 번청으로 가져가게 했다. 그 중에서 번주(藩主) 마쓰타하라 호키노카미(松平伯耆守)가 나가사키 부교에게 보냈던 구상서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돛토리번이 로우주우에게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술해, 금후 조선인이 다케시마로 오지 않도록 하고 지금처럼 다케시마의 전복을 로우주우에게 헌상(獻上)하고 싶다는 제의를 로우주우가 들어 주었다고 적었다.³⁰⁾

로우주우의 뜻을 전하는 에도 번저의 파발꾼은 5월 26일에 돛토리 번청에 전달되어 번청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보내는 사자는 만일의 경우를 고려해 야마다 헤이자에몬(山田兵左衛門)과 히라이 진우에몬(平井甚右衛門) 두 명으로 하고, 동행하는 의사는 치쿠마 겐세키(竹間玄碩), 이송 담당은 요나고 조(米子組) 중에서 두 명을 총당했다. 또 나가사키로 가는 길로서, 해로(海路)는 위험하므로 육로로 정했다. 조선인의 이송에 돛토리 번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³¹⁾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돛토리번에서는 에도 막부와 약속은 절대적이고 추후의 어긋남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28) 및 『大谷家文書』

27) 『控帳』 4月28日條

28) 『御用人日記』 5月9日條

29) 전계, 5月15日條

30) 전계, 5月15日條

31) 『控帳』 元祿6(1693)年5月26日條

었다. 번주의 마쓰타히라 호키노카미 (이케다 미쓰나카, 池田光仲)는 원래대로라면 비젠(備前) 오카야마번(岡山藩)을 이어가고 있을 상황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중요한 오카야마번을 맡길 수 없다는 에도 막부의 판단으로 녹봉을 줄여 돛토리번으로 전봉(轉封)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는 에도 막부의 명령이니 일단 명을 받은 이상 만전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므로, 그 준비를 위해 그들은 돛토리 성하(城下)로 이송되었다. 이송 때에는 함부로 구경하러 나가지 말라는 명이 내려졌다. 조선인이 난폭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 특히 여자나 어린아이들의 구경은 금지되었다.³²⁾ 그 때까지 안용복 등은 요나고의 오야 저택에서 외출을 금지 당하고 그 대신에 술을 하루에 3승(5.4 리터)까지 허락받는 감금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으므로,³³⁾ 흑시라도 술기운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6월 1일에 안용복 등은 이나바국의 돛토리 성하에 도착해 중신의 아라오 야마토(荒尾大和) 저택에서 하루 밤을 지냈다. 다음 날 같은 중신인 와다 시키부(和田式部), 쓰다 쇼우켄(津田將監), 이케다 휴가(池田日向)등 세 명이 나란히 아라오 맥을 방문해 안용복(안평사) 등과 만났다.³⁴⁾ 그 목적이나 면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나이토우 세이쥬는 중신들이 호기심에서 만난 것이 아닌 가라는 상정을 하였다.³⁵⁾

안용복 등은 중신들과 만난 직후 조회소(町會所)로 옮겨져, 6월 7일에 나가사키로 출발했다. 나가사키에는 이미 결정된 수행자 이외에 조선인을 위한 요리인이 1명, 가마를 메는 족경(足輕)이 조선 사람 한 사람당 4명씩 수행되었다.³⁶⁾ 따라서 일행의 총인원은 16

명이 되었다. 일행은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각지에서 접대를 잘 받았던 모양이다.³⁷⁾

그 사이에 에도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5월 21일에 간조우 부교(勘定奉行) 마쓰타히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는 돛토리 번저에 다케시마 도해에 관한 질문을 했다. 번저는 곧 대답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해서는 다음 날 회답서를 제출하고, 돛토리에 질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한 달 후인 6월 27일에 회답서를 제출했다. 두 번에 걸친 회답서에서 도해 면허는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의 알선으로 로우주우의 봉서(奉書)를 받아서 행했던 것이나,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이 도쿠가와(徳川) 장군 가문의 문장(紋章)을 배에 세우고 도해했던 것, 그 문장 덕분에 조선에 표류했을 때 쉽게 일본 배임을 알고 쓰시마를 통해 송환되었던 것, 돛토리번이 막부에게 헌상한 전복은 다케시마의 전복이었다는 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³⁸⁾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다케시마는 돛토리번의 지배지가 아니라고 명언해 “다케시마는 이도(離島)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호키노카미가 지배하는 땅도 아니다.” 라고 회답한 점이다.³⁹⁾ 돛토리번은 다케시마 도해가 막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막부의 관할 하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돛토리번으로서는 그러한 장소에 조선인이 왕래하여 전복 등을 따고 일본인 어부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직접적인 관리자인 막부에게 조선인의 왕래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5) 조선 역사서가 본 안용복 연행사건

조선 역사서가 안용복 연행사건을 어떻게 기술했는지를 간단히 보기로 한다. 먼저 안용복 연행사건으로부터 77년 후에 간행된 『동국문헌비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안용복의 공으로서

32) 전계, 5月28日條

33) 전계, 5月11日條

34) 전계, 5月2日條

35) 나이토우 세이쥬, 앞의 책, 2005, P100

36) 『御用人日記』 6月10日條

37) 전계, 8月9日條

38) 전계, 5月21日條, および『竹嶋之書付』

39) 전계, “竹嶋は はなれ嶋にて人住居は不仕候 尤 伯耆守支配所にて無之候”

“백기주(伯耆州)의 태수는 마침내 관백(關伯, 간파쿠)에게 상담해, 안용복 등에게 서계(書契)를 만들어 주면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안용복이 귀국한 후에 비변사에서 공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기술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잘못된 어구를 지적하고자 한다. ‘호키주’란 호칭은 적당하지 않다. 보통 ‘호키’ 또는 ‘호키국’, ‘백주(伯州)’라고 불린다. 혹은 번 이름이면 ‘돛토리번’이라 한다. 다만 번 이름이 일반화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이고, 에도 시대에 번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돛토리번’이나 ‘쓰시마번’이라고 했다. 돛토리번은 호키국과 번청이 있던 이나바국을 지배했다. 한편 에도 막부의 최고 권력자는 정식으로는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약칭하여 ‘장군’이라고 불렸다. 따라서 안용복이 말하는 ‘관백’은 ‘장군’이라 해야 할 것이다. 관백은 덴노(天皇)를 모시는 최고 관직명이며, 에도 시대는 장군과 다른 인물이 임명되었다.

한편 『동국문헌비고』는 안용복 사건부터 77년이나 경과된 후에 쓰였기 때문에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없다. 이에 비해 『숙종실록』은 같은 시대의 기록으로서 보다 중요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숙종실록』은 『동국문헌비고』와 달리, 안용복 등의 공술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특히 ‘서계’에 관한 안용복의 공술로서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땅이라 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받았다.” 라고 소개했으나,⁴⁰⁾ 『숙종실록』 나아가서 조정은 그 말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용복의 공술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1694년에 접위관으로 부임하여 동래부에서 안용복 등을 직접 심문한 적이 있는 유집일(兪集一)은 안용복이 말한 “호키주(伯耆州)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文書)를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겁탈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신용하지 않았다. 유집일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⁴¹⁾

근년 동래에 봉사(奉使)했을 때에 안용복을 추문(推問)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호키주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를 쓰시마 사람이 겁탈했다” 했는데, 이번 그가 호키주에 정문(明文)한 데에는, “쓰시마도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바치고 본국(本國)에 내보낸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에서 받겠다고 했다”고 했으니, 전후에 한 말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쓰시마는 본디 속은(贖銀)을 와서 거둔 일이 없고, 임술 약조(壬戌約條)도 비밀에 관계되는데, 안용복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가 호키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했다 해서 조선 땅이라 꽤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는 울릉도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해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니다.

유집일은 일본이 ‘호키주의 식읍’으로 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관해 외교 사절도 아닌 납치를 당한 한 어부가 아무리 영토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안용복에게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라고 인정하는 서계를 써 주었 우리가 없다고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집일의 통찰력은 맞다. 안용복의 공술을 신용하지 않은 최고 권력자인 영부사(領府事) 남구만도 마찬가지였다. 남구만은 이렇게 말했다.⁴²⁾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호키주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쓰시마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쓰시마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니다.

40) 『肅宗實錄』 肅宗22(1696)年9月25日

41) 전계, 10月23日

42) 전계, 10月13日

남구만은 안용복이 3년 후 자청해 도일하자, 그 정열을 평가해 안용복의 말을 믿게 되었지만, 조정에서는 안용복이 말하는 “호키주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 이야기를 거의 아무도 신용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렇게 『숙종실록』에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6) 안용복은 에도(江戸)로 갔는가?

안용복 연행사건을 계기로 조정과 쓰시마번 사이에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 일건’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 교섭에 안용복의 언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안용복의 일본에서의 행보가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용복 등은 에도에 가서 후하게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교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정은 안용복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술에서 안용복 등은 에도로 가서 노자(路資)를 받는 등 후한 접대를 받았다고 이해했다. 그 반면에 쓰시마번이 안용복 등을 냉대한 것은 에도 대군(大君)의 의사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은 대우의 차이에 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쓰시마번의 교섭 태도를 그렇게 이해했다. 즉 쓰시마번이 조선의 서한에서 ‘폐경지울릉도(弊境之鬱陵島)’라는 구절을 삭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은 쓰시마번이 에도 막부의 뜻과는 달리 독선적으로 ‘다케시마 일건’의 교섭을 하고 있다는 불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⁴³⁾ 그러한 배경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안용복 등은 과연 에도로 갔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정부의 견해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일본의 일부 자료에서는 안용복 등이 돛토리번에서 에도 막부로 보내졌다는 기술이 있다. 그 대표적인 자료중의 하나가 오야 가문의 『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서』이다. 그 기록은 겐로쿠 7년(6년의 잘못) 오야 가문이 안용복과 박어둔을 연행한 사건의 후일담을 이렇게 적고 있다.⁴⁴⁾

돛토리부(鳥取府)에서 조사한 후에 당인(唐人)을 에도부(江戸府)로 인도했다. 에도부에서 심문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로 기록이 있으므로 이것을 생략한다.

이처럼 『다케시마 도해 유래기 발서』는 안용복 등이 에도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은 의문이다. 이 책은 ‘다케시마 일건’ 후, 150년 이상 경과 한 1868년에 오야 가문의 자손에 의해서 쓰였기 때문에 틀린 기술도 많다. 예를 들면 위의 구절에서 연호를 겐로쿠 6년이라 해야 되는데 7년으로 잘못 쓰고 있는 점이나, 또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은 해를 겐나(元和) 4년, 1618년으로 하고 있으나, 이케우치의 연구에 의하면 1625년이 맞다.⁴⁵⁾ 이처럼 이 책은 전반적으로 틀린 부분이 많고 신뢰성이 낮은 사료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료와의 대조가 필요하다. 다른 사료 『이본 호키지(異本伯耆志)』에도 “이인(異人)을 에도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⁴⁶⁾ 그 사료는 제목에도 있듯이 ‘이본’이므로 참고 정도의 가치만을 지닌다. 본래의 『호키지』에 그러한 기술은 없다.

이와는 달리 공적인 사료, 예를 들면 돛토리번의 『히카에초우』나 『고요우닌 닛키(御用人日記)』 등에는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시사하는 기술이 전혀 없다. 더구나 지금까지 상세히 살폈던 것처럼 돛토리번이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보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에도로 갔다는 설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편 조선의 역사서인 『숙종실록』에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인정하는 기사가 있다. 그것은 에도로 끌고 간 어민을 에도의 대군(장군)이 후하게 접대한 것을 감사하는 쓰시마번 앞으로 보낸 서

44) 『竹島渡來由來記拔書』

鳥取府御吟味之上 唐人江戸へ御引渡 則江戸表御穿鑿相濟 順々御贈歸と成ル 別記有之ゆへ 略之

45) 池内敏, 앞의 책, 2006, P 249.

46)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發行, 1996, P 13.

43) 『肅宗實錄』肅宗20(1694)年8月14日

간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⁴⁷⁾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울릉도)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에도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이 충분히 사정을 살펴보고 많은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기사를 근거로 삼아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믿는 연구자가 많은 듯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서한을 받은 쓰시마번이나 에도 막부를 비롯해 최근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에도 행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을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쓰시마번의 『다케시마 기사』는 조선에서 받은 위의 서한을 기록한 기사에서 ‘인질’인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부정하는 견해를 이렇게 적었다.⁴⁸⁾

인질 두 명은 에도로는 안 갔지만, (조선의) 서한에 이렇게 기재된 것은 두 명이 나가사키를 에도로 착각해, 조선에 돌아가서 에도에 보내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쓰시마번은 서한을 받은 직후에는 안용복 등이 나가사키를 에도로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선과의 교섭 과정에서 안용복 등은 “이나바의 성부(城府)를 에도와 착각한 데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바꾸었다.⁴⁹⁾ 이 견해는 겐로쿠 8(1695)년 12월에 쓰시마 번주의 후견인(後見人)인 소우 교부타이후(宗刑部大輔)⁵⁰⁾가 에도로 갔을 때 제출한 「구상지각(口上之覺)」에 다음과 같이

47) 『肅宗實錄』肅宗20年 8月 14日

48) 『竹島紀事』元祿7(1694)年 9月 12日

49) 전계, 元祿8年 6月

50) 다른 이름은 소우 요시자네(宗義眞), 전 번주인 소우 요시쓰구(宗義倫)는 元祿 7(1694)年9月27日에 사망하여, 소우 요시자네가 새로운 번주로 된 어린 소우 요시미치(宗義方), 별명 지로우(次郎)의 후견인으로 뒀음.

기록되어 있다.⁵¹⁾

제작년에 다케시마에서 유치된 조선인 2명을 그 나라로 돌려보냈는데, 어민들은 이나바부(因幡府)를 에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동부(東部, 에도)에서 나가시키까지 보내졌던 도중에 좋은 접대를 받았는데, 쓰시마노카미(對馬守)에게 간 이후 경호를 엄하게 받으면서 송환에 이르게 된 일에 대해서는, 상부의 생각과는 달리 쓰시마노카미의 사건으로 이렇게 다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다케시마로 조선인이 가지 않도록 요청한 것도 역시 쓰시마노카미의 사건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그릇된 추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견해에 물론 막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쓰시마번이나 이나바국을 통치하는 돛토리번, 그리고 에도 막부도 안용복 등의 에도 행을 부정했던 것이다. 또 안용복 등이 에도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일정상으로도 무리가 있다.

(7) 나가사키(長崎)에서의 안용복

1693년 6월 30일 돛토리번의 사자는 안용복 등을 데리고 무사히 나가사키로 도착했다. 그것을 『다케시마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⁵²⁾

51) 전계, 元祿8年10月 및 『磯竹島覺書』. 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口上之覺

去>年竹嶋にて被留置候朝鮮人貳人彼國江送屆候處, 漁民共因幡府者江戶與存, 東部より長崎迄被遣候於途中者, 結構御馳走被仰付候得共, 對馬守方江御渡被成候以後, 警固等嚴鋪申付送還候段 上之思召者左様二無之候得共, 對馬守私之了簡を以如此仕候與申とか由ニ御座候, 依之竹嶋江重而朝鮮人不被差渡候様申遣候儀茂, 弥以對馬守私之存寄にて申渡し候哉と彼國にも邪推仕候由承及候.

52) 『竹島紀事』元祿6(1693)年 6月

朝鮮人貳人 五月七日因幡發足 六月晦日長崎江到着 因幡より護送之御使者松平伯耆守様御家來 山田與左衛門 平井甚右衛門 德人數 凡拾余人相附 尤朝鮮人駕龍にて被相送候

조선인 두 명이 5월 7일에 이나바 (因幡)를 출발. 6월 그믐에 나가사키에 도착. 이나바에서 호송해 온 사자는 마쓰타히라 호키노카미의 가신 야마다 요자에몬(山田與左衛門)과 히라이 진우에몬(平井甚右衛門). 총인원 약 십여 명이 수행했다.⁵³⁾ 조선인은 가마에 태워 보내졌다.

이 기사에서도 안용복 등은 가마에 태워져 보내진 것으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도착한 다음 날에 나가사키 부교 관아에서 가와구치 세쓰노카미(川口攝津守)와 야마오카 쓰시마노카미(山岡對島守) 두 명의 부교가 참석해, 쓰시마번의 나가사키 루수이야쿠(留守居役)인 하마다 겐베에(濱田源兵衛)가 같은 번의 역관을 통해 안용복 등을 심문했다. 그 때 안용복 등이 구술한 내용은 돛토리번이 작성한 「조선인 구술서」와 틀린 점이 없는지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용복의 나이가 문제되었다. 돛토리번의 문서에서는 43세라 되어 있는데, 나가사키에서는 40세라고 했으므로 그 차이를 추궁받았다.⁵⁴⁾ 안용복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면밀히 점검받은 뒤에 ‘조선인 2인 진술’ 이 아래와 같이 만들어졌다.⁵⁵⁾

1. 조선국 경상북도 동래군 부산포의 안요쿠호키와 울산의 박토라히라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울산이라는 곳에서 다케시마라는 곳으

53) 『竹島紀事』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두 책이 있으나, 그 중의 하나는 총 인원을 ‘九拾余人’ 라 했다. 그러나 돛토리번의 『控帳』나 『御用人日記』의 기술에 의하면 동반자의 총인원은 ‘拾余人’ 이다. 상식적으로도 ‘九拾余人’ 은 너무 많다. 그리고 공문서관에 있는 다른 『竹島紀事』에서는 ‘九’ 자를 ‘凡(약이란 뜻)’ 자의 異体字로 받아드릴 수 있는 요지가 조금은 있다. 그러므로 『竹島紀事』에 있는 ‘九’ 자는 필사 시에 잘못이라 생각됨으로 본고에서는 ‘약 10余人’ 이라 한다.

54) 1696년의 『元祿九丙子年 朝鮮舟着岸 一卷之覺書』에 의하면 허리에 띠 패에 “通政太夫 安龍福 年甲午生” 이라 쓰여 있으므로 1654년생이고, 제1차 도일 시의 달력 나이는 40살이다.

55) 『竹島紀事』 元祿6(1693)年 6月

로 전복이나 미역을 따러 3월 11일에 출발해 25일에 영해(寧海)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영해를 27일 아침 진(辰)시에 출발해 유(酉)시에 다케시마로 도착했습니다. 전복이나 미역을 따려고 머물고 있었는데, 일본인이 4월 17일에 우리들이 있는 곳에 와서 옷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들을 그들의 배에 태우고 즉각 오(午)시에 출발하고, 돛토리에는 5월 1일 미(未)시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다케시마에는 전복이나 미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배에 열 명이 타고 영해까지 왔는데 10명 중의 한 사람이 병들었으므로 영해에 내려두고 아홉 명이 타고 다케시마로 왔습니다. 열 명 중 아홉 명은 울산사람 한 명은 부산포 사람입니다.

1. 우리들이 탄 배와 유선(類船)은 세 척이고, 그 중 한 척은 전라도의 배라고 들었습니다. 그 인원은 17명이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척은 15명이 탔고 경상도의 가덕(加德)이란 곳의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배에 잡혀 왔으므로, 그들이 즉각 조선에 돌아갔는지 전후의 일은 모릅니다.
1. 이번에 우리가 전복을 따러 온 섬은 조선국에서는 무루구세무라 합니다.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불린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1. 이번에 여기까지 올 때 경호하는 사람들에게 접대를 잘 받고 왔습니다. 옷감이나 목면, 의류 등도 받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나바에서 구상서에 말한 바와 그대로입니다.
1. 우리들은 언제나 좋은 운수를 빕니다.
1. 바쿠토라히는 34세, 안요쿠호키는 40세입니다. 그런데 이나바에서 43세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틀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공술을 한 시기는 나가사키에 도착한 다음 날인데, 안용복은 이동 중의 대우에 만족하고 있었으므로 취조에 대해 아무 거리낌 없이 진술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술 중에서 안용복은 그들이 전복을 따러 온 섬을 무루구세무라 부르고 있으나, 그것이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우산도에 관한 것은 ‘조선인 2인 진술’ 에는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안용복 들이 무릉도 등에 관해 영토 주장을 한 흔적은 보이

지 않는다. 또 안용복 등이 돛토리번에서 영토 주장을 했다는 기술도 보이지 않는다. 심문 때 안용복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검사가 이루어져 돛토리번에서 받은 물건이 기록되었는데, 그 속에 『동국문헌비고』가 말하는 돛토리번 태수의 ‘서계’ 등은 없었다.⁵⁶⁾

이 ‘조선인 2인 진술’은 돛토리번의 구상서와 어긋나는 점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안용복 등은 쓰시마번의 하마다 겐베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막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안용복 등을 완전히 쓰시마번에 이송하는 것은 보류되었다. 원칙적으로 나가사키 부교우 관아의 관할 하에 놓여졌던 것이다.

(8) 쓰시마번(對馬藩)에서의 안용복

1693년 8월 13일에 에도 막부에서 조선인을 쓰시마번으로 넘기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나가사키 부교는 안용복 등을 완전히 쓰시마번으로 넘겼다. 그 때 부교는 이번에는 보통의 조선 어민과는 다르므로 나가사키 체재중의 비용은 내지 않을 것을 통고했다.⁵⁷⁾ 안용복 등을 표류민이 아닌, 일본의 영역을 침입한 죄인 취급을 한 것 같다. 9월 2일에 안용복 등은 쓰시마부로 보내졌다. 일설에는 안용복이 탄 배가 9월 3일에 쓰시마에 도착했다고 한다.⁵⁸⁾ 9월 4일, 안용복은 바로 쓰시마번의 조사를 받았다. 그 때의 안용복의 공술 내용은 나가사키에서의 ‘조선인 2인 진술’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새로운 공술이 더해졌다.⁵⁹⁾

- 배에 탄 아홉 명의 이름이나 출신지. 안용복 이외는 울산 출신.
- 영해와 무루구세무(무릉도)간의 거리는 50리(200km).
- 작년, 울산의 긴바타이등 20명이 그 섬으로 건너갔다. 이번에는

긴바타이의 안내로 왔다.

- 경상도 가덕의 배는 두 명이 예전에 온 적이 있다.
- 그 섬(무릉도)이 일본 것인지, 조선 땅인지는 전혀 모른다.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땅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다.
- 돛토리를 출발해 26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도중 곳곳에서 좋은 접대를 받았다. 밥은 된장국에 7, 8접시의 요리가 나왔다. 둘다 가마에 태워져 나가사키에 왔다.

마지막 항목에서 “돛토리를 출발해”라 되고 있지만, 이것은 안용복의 진술이 아니라, 필사자의 지식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안용복 자신은 나가사키로 올 때의 출발 지점을 돛토리가 아니라 에도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중에서 성대한 접대를 받았던 것은 에도 ‘관백’의 은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좋은 대우가 돌변해, 쓰시마번에서 안용복 등은 냉대 받고 조선인 숙소에서 엄한 감시 하에 놓여 외출도 금지되었다. 심지어 쓰시마번은 안용복 등을 ‘인질’로 삼아 조선에 보낸 서한에도 그렇게 표현했다.⁶⁰⁾ 안용복 자신도 귀국 후에 쓰시마에서 결박당했다고 공술했다.⁶¹⁾ 안용복은 쓰시마번의 학대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3년 후에 자칭해 도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안용복을 심문한 직후 쓰시마번 내부에서는 막부가 내린 명령의 배후에 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어났다. 만약 막부가 다케시마를 호키국의 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찍이 다케시마에서 야자에몬 등을 잡는 것은 호키국에 명령했을 것이다.⁶²⁾ 이를 쓰시마번에 명령한 것은 막부가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를 막부에 문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덴류인(天龍院, 宗義眞)에서 그의 측근인 가노우 고노수케(加納幸之助)를

56) 전계

57) 전계, 元祿6(1693)年 8月 14日

58) 전계, 元祿6(1693)年 9月 3日

59) 전계, 元祿6(1693)年 9月 4日, 朝鮮人口書

60) 전계, 元祿6(1693)年 10月, 宗義倫가 禮曹參判에게 보낸 書簡

61) 전계, 元祿6(1696)年 6月 23日

62) 『通航一覽』 卷之百二十九, 朝鮮國部百五에 야자에몬(彌左衛門)사건에 관하여 「元和六庚申年 宗對島守義成 命によりて竹島[朝鮮國屬島]に於て潛商のもの二人を捕へて京師に送る」라는 기사가 있다.

통해 제출되었다.⁶³⁾ 그러나 그 때의 증론은 막부의 명령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었고, 그 이상의 의논은 없었다. 쓰시마번으로서도 막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설령 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라 해도 명령에 따라 그 섬에 조선인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조선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다.

3.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1)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개시

1693년 11월 1일, 쓰시마번의 가로인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 橋眞重)은 안용복 등을 연행해 부산의 절영도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왜관에 들어갔다. 다다는 공의(公儀, 막부)의 명이라는 명분으로, 꺼려하는 동래부를 설득해, 대차사(大差使, 差倭) 정관(正官)의 자격으로 ‘다케시마 일건’ 제1차 교섭에 임했다. 이에 대해 조정은 대차사와 동격인 접위관(接慰官)으로 홍문관 교리인 홍중하(洪重夏)를 중앙에서 임시로 파견해, 동래부사와 함께 교섭에 임하도록 했다. 양자의 회담은 12월 10일 왜관에서 열려, 그 때 안용복 등이 조선 측으로 인도 되었다. 그 자리에서 다다는 쓰시마 번 주인 소우 요시쓰구(宗義倫)의 서간을 넘겨주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이어 조선의 어민들이 일본의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했으므로, 그 어민 두 명을 구속해 증거를 위한 인질로 삼았다고 말하고, 막부의 명에 따라 그 어민을 돌려보내고, 앞으로는 조선인이 다케시마에 왕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⁶⁴⁾

이에 대해, 조선측은 어민에게 ‘폐경지울릉도(弊境之鬱陵島)’ 등 외양에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상과, 어민이 일본의 다

케시마로 들어간 것을 우호의 정으로 돌려보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 어민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표류할 수 있다는 것, 멀리 국경을 넘어 뒤섞여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법으로 징계할 일이라는 것, 바야흐로 범인을 법률에 의거해 징계하려 했던 것, 이후에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단속할 것 등을 쓴 회답서를 보냈다.⁶⁵⁾

이 때 조정은 마치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다른 섬인 것처럼 써서 회답을 했는데, 이것은 유화(宥和)정책 때문이었을 뿐, 처음부터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같은 섬이라는 것을 알면서 회답한 것이다. 조정은 이제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섬 때문에 일본과의 우호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는 한편, 울릉도에 일본인이 살게 되는 것도 걱정이었다. 그러므로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남기는 방침 아래⁶⁶⁾ 홍준하 등은 궁여지책으로 다케시마와 울릉도가 다른 섬인 것처럼 꾸미는 2도 2명책(二島二名策)을 궁리해내어, 회답서에 ‘폐경지울릉도’의 구절을 넣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 취지를 쓰시마번에게 예고까지 하고 있었다. 접위관의 시나리오를 미리 파악한 정관 다다 요자에몬은 회담에서 조선의 유화정책을 일축하고, 다케시마 즉 울릉도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영토가 되었으니, 조선인의 섬 왕래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다음과 같은 강경한 주장을 했다.⁶⁷⁾

쓰시마번은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인 지배를 주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하는 ‘폐경지울릉도’라고 쓰인 조선의 서한을 받아드릴 수 없었다. 이 구절의 삭제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에 응수가 이어졌지만 교섭이 결렬되어, 1694년 2월 22일, 다다 요자에몬은 왜관을 떠나 귀국했다.⁶⁸⁾ 그 때문에 임시 직책의 접위관 홍중하도 그 임무를 마치고, 제1차 교섭이 끝났

63) 『竹島紀事』 元祿6(1693)年 9月4日.

64) 전계, 元祿6(1693)年 10月

65) 『肅宗實錄』 肅宗20(1694)年, 2月 23日. 서한의 번각문은, 田中康夫·田代和生. 『朝鮮通交大紀』 名著出版, 1978, P282

66) 전계, 肅宗19(1693)年 11月 18日

67) 전계, 元祿6(1693)年 12月1 0日, ‘正官口上’

68) 전계, 元祿 7 (1694)年 2月 22日

다.

그러나 다다는 윤 5월 13일에 다시 대차사(차왜)의 자격으로 왜 관에 왔다.⁶⁹⁾ 그 목적은 문제가 되었던 ‘폐경지울릉도’ 구절의 삭제를 요구하는 쓰시마 번주 소우 요시츠구의 서간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조선에서 받은 서한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해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접위관으로 유집일이 임명되어 제2차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교섭에서 조정은 그 때까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2도 2명으로 하던 방침을 전환해,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1도 2명이고 조선 땅이라는 예조참판의 서한을 차왜에게 넘겼다. 그 서한의 후반 부분에서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금지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⁷⁰⁾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探)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竹島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竹島를 귀국 지방이라 해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 했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경을 침범해 와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와 같은 뜻을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해,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둬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또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이 서한을 보고 다다 요자에몬들은 놀랐다. 조선의 지난번의 서한과 전혀 달라 갑자기 일본인의 섬 왕래 금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쓰시마번은 조선이 이렇게 방침을 바꾼 배경에 안용복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짐작했다.⁷¹⁾

계유(1693)년의 서한과 갑술(1694)년의 서한 내용이 유난히 다른 이유는 다케시마로 나간 조선 어민들을 불러 조정이 직접 물었더니, 그들의 말로는 다케시마에서 줄에 묶여 죄인 취급을 받고 에도에 보내졌는데, 에도의 관아에서는 태도가 돌변하여, 그런 취급을 한 것은 엄청난 실수라 하면서, 그들을 잡은 자들에게 참죄(斬罪)를 명하고, 우리들에게는 의복을 주시어 정중하게 접대해 주고 나가사키까지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가마에 태워 주시고, 좌우로부터 부채질을 해주고, 금을 주시는 등, 극진히 대접을 받았는데, 나가사키에서 다이슈(對州, 쓰시마번을 말함)의 관원들에게 인계된 후, 다시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죄인처럼 다루고 다시 그 섬으로 왕래하지 않도록 한 것은 에도의 마음이 아니고 그저 쓰시마의 마음이라고 말하니, 조정은 실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 후부터는 쓰시마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공명(公命)이 아니라고 이해해 “(일본인이) 월경, 침입이라든가, 성신(誠信)이 모자라다” 등의 글을 쓰는 듯 합니다. 그 어민들의 이야기에서 이해한 것이므로, 갑술의 회답서 중에 “의외에도 귀국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서로 충돌하게 되자,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에도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도 귀국의 대군이 충분히 사정을 살펴주시어 많은 노자를 주어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취지에 어울리므로, 어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정은 직접 그 취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바의 성부(城府)를 에도로 착각한 데서 이러한 일이 시작되었다고 의심이 가니, 이것을 충분히 밝히면 앞으로는 납득하여 적절한 회답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용복이 이나바국을 에도로 착각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앞에 쓴 대로인데, 안용복은 그 ‘에도’ 즉 이나바국에서는 잘 접대를 받았는데 쓰시마번에서 갑자기 죄인 취급을 당한 것은 막부의 명이 아니라, 쓰시마번이 제멋대로 한 것이라는 안용복의 공술이 조정에서 거의 신용되었다. 그래서 안용복의 진술이 조정을 움직였던

69) 전계, 元祿7(1694)年 閏5月 13日

70) 『肅宗實錄』 肅宗20(1694)年8月14日

71) 『竹島紀事』 元祿8(1695)年 6月

것 같다. 『숙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⁷²⁾

틀림없이 안용복과 박어둔이 처음 일본에 갔을 적에는 매우 대우를 잘받았다. 의복과 호초(胡椒), 그리고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해 쓸데없는 간섭을 못하게 했는데, 나가사키 섬에서부터 침책(侵責)이 시작 되었다. 쓰시마번주의 서계에서 竹島에 관해 설득하고 있는 것은, 장차 에도에서 공을 세우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이다. 유집일이 안용복에게 물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용복이 말한, 쓰시마번의 “에도에 공을 세우기 위한 계책”이란 견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맞다고 할 수 있다. 쓰시마번은 막부의 명령 이상의 일을 독선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의 명령은 다만 다케시마에 조선인이 오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구나 조선이 그것을 받아드린다고 서한으로 약속했으니, 형식상으로는 막부의 명령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쓰시마번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조선의 서한에 ‘폐경지울릉도’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트집 잡아, 다케시마는 바로 울릉도이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일본의 지배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울릉도 지배를 조선에게 억지로 인정시키기 위해 독단적으로 행했다. 이것이야말로 쓰시마번이 “에도에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쓰시마번의 계책에 조정이 반발하게 된 것은 안용복의 공술이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선의 강경한 서한에 대해 쓰시마번은 본격적으로 반론을 시작했다. 1695년 5월 15일에 조선의 서한에 대한 4개 조의 의문점을 동래부에 제시해, 5월 30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태도를 단단히 굳힌 조선에서 회답을 얻지 못하자, 다다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6월 10일에 왜관을 떠났다. 이렇게 제2차 교섭은 끝이 났다. 이후 쓰시마번에서 이 문제 때문에 대차사가 파견되는

일은 없었다.

(2)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전환

다다의 귀국 후에 쓰시마번 내부에서 강경 노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나중에 ‘다케시마일건’의 해결에 크게 이바지한 온건파의 쓰야마 쇼우에몬(陶山庄右衛門)은 타국의 섬을 억지로 빼앗아 에도의 공의(公儀)로 바치는 방법은 ‘불의(不義)라 말할 수 있어도 충공(忠功)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⁷³⁾ 바로 안용복이 말하는 “에도에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쓰시마번은 조선과의 교섭이 완전히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자, 소우 요시자네와 쓰시마 현지 가로우인 히라타 나오우에몬(平田直右衛門) 등이 에도로 가서 막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1695년 11월 25일에 히라타는 로우주우인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의 가신인 미사와 기치자에몬(三澤吉左衛門)과 면담하여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⁷⁴⁾ 그리고 보충 자료로서 소우 요시자네의 구상서와 조선과의 왕복 서한, 『여지승람』과 『지봉유설』 등의 문헌을 제출했다.

이것을 계기로 막부는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12월 24일, 아베는 돛토리번의 에도 번저(藩邸)에게 7개 조의 질문을 했다. 그 제1조에서 “인슈(因州), 하쿠슈(伯州)에 부속한 다케시마는 언제부터 양국에 속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막부로서는 다케시마가 틀림없이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지배하는 돛토리번에 소속하는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부는 7, 80년 전의 ‘잠상(潛商)사건’ 때 다케시마를 조선영토라고 판단한 역사가 체계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돛토리번의 회답은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의 소속은 아닙니다”라고 하

72) 『肅宗實錄』 肅宗20(1694)年 8月 14日

73) “不義とは申候而も、忠功とは被申間敷” 池内, 앞의 책, P296

74) 『竹島紀事』 元祿8(1695)年 10月

여 돛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단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제7조에서 “다케시마 이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이 있습니까?” 라고 막부가 질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돛토리번의 회답은 “다케시마나 마쓰시마, 그 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라고 하여 다케시마와 함께 마쓰시마에 관해서도 돛토리번에 부속하는 것이 아님을 명언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막부는 마쓰시마(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 이름이 나온 마쓰시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위치나 소속, 도해의 실상 등에 관해 추가 질문을 했던 것이다.⁷⁵⁾

막부는 돛토리번이 다케시마는 자기 영토가 아니다라고 회답했기 때문에 그 섬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쓰시마번과 협의했다. 1696년 1월 28일에 로우주우 4명이 나란히 참석한 자리에서 로우주우도다 야마시로노카미(戶田山城守)가 쓰시마의 덴류인(天龍院, 宗義眞)에게 각서를 전달함과 동시에 요나고 백성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⁷⁶⁾

구상의 각서

오래 전부터 호키 요나고의 백성 2명이 다케시마로 도해해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조선인도 그 섬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쉬이는 것은 이익이 없으므로 앞으로 요나고 백성의 도해를 금지할 것을 (장군이) 분부하셨습니다. 마쓰다이라 호키노카미에게도 봉서(奉書)로 알렸습니다. 그것을 명심하도록 명합니다.

같은 날 로우주우 4명이 서명한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봉서(奉書)가 에도의 돛토리 번저에게 넘겼다.⁷⁷⁾ 그로 인해 돛토리 번주에게 발행된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 허가증은 2월 9일에 막부에 반납되었다.⁷⁸⁾ 그러나 돛토리 현지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봉서가

전달된 것은 8월 1일이었다. 전달이 반년이나 늦은 이유는 로우주우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로부터 돛토리 번주가 귀국해 직접 현지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경위를 ‘고요닌 닛키’ 8월 1일조는 이렇게 적었다.⁷⁹⁾

하쿠슈 요나고의 백성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와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에게 앞으로 다케시마 도해의 일을 금지한다고 (막부가) 명했음을 예전에 (번주가) 에도에 있었을 적에 봉서로 내리셨고, (번주가) 귀국하시고 이 일을 이치베에와 진키치에게 명하라는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의 지시에 따라, 오늘 금지의 뜻을 명했습니다.

로우주우가 전달의 시기를 늦춘 이유는 쓰시마번의 요청을 다소 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일건’ 교섭에서 조선에 대해 조선인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를 요구 중이고, 그 와중에 막부에 의한 일본인의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이 쓰시마번 이외에서 조선에 알려지면 쓰시마번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소우 요시자네가 막부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의 공개를 늦추도록 요청했던 것이다.⁸⁰⁾

(3)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해결

에도 막부에 의한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바로 조선에 전달되지 않았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일건’ 교섭이 암초에 부딪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조선에 전달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이다. 그때까지의 쓰시마번은 조선인의 도해금지를 요구하고 수 년 간이나

75) 『竹島之書附』

76) 『竹島紀事』 元祿9(1696)年 1月 28日

77) 『御用人日記』 元祿9(1696)年 1月 28日

78) 『磯竹島覺書』 및 『磯竹島事略』

79) 『御用人日記』 元祿 9 (1696)年 8月 1日

伯州米子之町人 村川市兵衛 大屋甚吉江 向後竹嶋渡海之儀 制禁被仰出之旨 最前御在府之内被成御奉書 御歸國之上を以 右之段 市兵衛 甚吉江被仰渡候様 大久保加賀守御指圖ニ付て 今日弥可爲制禁之旨被仰付之.

80) 『竹島紀事』 元祿9(1696)年 1月 28日

조선과 힘든 교섭을 계속해 왔지만, 막부의 결정은 일본인의 도해 금지이고 쓰시마번의 요구와는 반대의 결론이므로 그것을 쉽게 조선에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교섭이 쓰시마번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막부의 명령에 거슬러 행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조선에서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한 중에 안용복의 제2차 도일이 행해진 것이었다. 안용복 문제와 함께 ‘다케시마 일건’ 교섭의 해결이 급하게 되었다. 쓰시마번은 막부와 협의 하여, 로우주우의 “가볍게 끝내도록” 하라는 의향을 받아들여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구두(口頭)로 전달하기로 했다. 쓰시마번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전달하므로 정식 문서를 보내는 것을 주저한 결과였다.

도해금지를 가볍게 구두로 전하는 것은 조선에서 도해(渡海) 역관사가 쓰시마로 파견된 기회를 이용했다. 10월 16일에 소우 요시자네는 쓰시마에 와 있던 조선의 도해 역관인 변동지와 송판사를 불러 구두로 막부의 결정을 전달했다. 게다가 그것을 구상서로 해서 두 역관에게 건네주었다. 동시에 안용복 등이 쓰시마번을 경유하지 않고 돛토리번으로 소송하러 온 사실을 추궁하는 구상서도 건넸다. 그러나 일본어의 구상서는 “낙착을 보기 어렵다”는 역관의 의견으로 인해, 두 통의 구상서를 한문으로 바꾸어, 도시요리(年寄)들이 서명 날인한 뒤 역관에게 건넸다. 다만 수신인은 적지 않았다. 이 도시요리들이란 여섯 명의 가로우를 가리킨다. 이 서류에 대해 변동지와 송판사의 회답서에는 수기무라 우네메 등 6명의 가로 앞으로 보내졌다. 쓰시마번의 도해금지를 알리는 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⁸¹⁾

전임 태수(太守)가 竹島의 일로 인해 사절을 귀국에 파견한 것이 두 차례인데 사절의 일이 완료되지 않은 채 별세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사절을 소환했습니다.

(宗義眞이) 머지 않아 상선(上船)해서 (江戶에) 입관(入觀)했을 때에 (老中의) 질문이 竹島의 지형과 방향에 미쳐서 사실에 근거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본방(本邦)으로부터의 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오히려 귀국으로부터의 거리는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마도 두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섞이면 잠통(潛通)과 사시(私市)등의 폐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곧 명령을 내려 사람들이 가서 어채(漁採)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무릇 틈의 벌어지는 것은 세미(細微)한 곳에서 생기고 화환(禍患)은 하찮은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급의 통병(通病)이니, 미리 못하도록 막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100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니, 하나의 섬 등에 불과한 작은 일을 곧바로 다투지 않는 것이 두 나라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궁(南宮, 예조)이 응해 정성스럽게 수서(修書)해서, 본주(對州)로 하여금 (조선 측의) 큰 감사를 대신 (江戶에) 전하게 할 것이며, 역사(譯使)가 귀국하는 날을 기다려 (이 뜻을) 아뢰어 빠뜨리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까지의 거리는 조선쪽이 더 가깝다는 것과, 그 섬에 조선과 일본 어민이 난입하여 밀무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일본인의 도해금지를 공식으로 알렸다. 이 중요 문서는 메이지 시대에 내무성이 다케시마의 귀속문제를 조사했을 때에도 인용되었다.⁸²⁾ 이 문서를 조선에 넘김으로써 ‘다케시마 일건’ 교섭은 거의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역관인 변동지와 송판사는 1697년 1월에 귀국했으므로,⁸³⁾ 조정에 일본인의 도해금지가 전달 된 것은 그 이후이다.

4.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1) 울릉도로의 도항

81) 전개, 元祿9(1696)年 10月

82) 『公文錄』 內務省之部, 明治10(1877)年 3月

83) 『竹島紀事』 元祿10(1697)年

1696년 안용복은 자청해서 제2차 도일을 했다. 그 행적을 도판2에 표시했다. 그는 울릉도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귀국 후 비변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⁸⁴⁾

저는 본디 동래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 근년에 울릉도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나서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했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안용복은 풍부한 해산물을 목적으로 울릉도로 갔다고 공술했지만, 그것은 목적의 하나이고 다른 목적도 있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의 행보를 일본의 사료에 의해 추적하기로 한다. 2005년에 발견된 오키도의 「무라가미 가문 문서」, 즉 『겐로쿠 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에 의하면 안용복은 3월 18일에 울릉도로 도착해, 약 2개월에 걸쳐 전복 등 해산물을 따고 있었다. 그러나 『속중실록』에 실린 안용복의 공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안용복은 그 때 일본인의 배를 발견해서 그들을 꾸짖고 쫓아냈다고 한다.⁸⁵⁾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해 있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앞장 서 말했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했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해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

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라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거기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왜 사는가?”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솔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달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동국문헌비고』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속중실록』에서는 송도를 ‘자산도(子山島)’ 라 했으나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산도(芋山島)’ 라고 했다. 또한 『속중실록』에는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동국문헌비고』에는 “왜가 대답해 말하기를, 본래 송도로 향했는데 마침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는지의 여부인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료에서는 관련된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또 일본의 일부 연구자는 이 해에 막부의 도해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해에는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시모조 마사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안용복이 오키도에 밀항해 온 것은 1696년 5월 20일. 하지만 쓰시마번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에도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해 금지를 돛토리번에 명한 것은 4개월 정도 전인 1월 28일. 돛토리번 요나고의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에 전해 준 ‘도해 면허’ 가 막부에 반납된 것은 2월 9일이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의 어민들과 만나서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다.” 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⁸⁶⁾

84) 『肅宗實錄』 肅宗22(1696)年 9月 25日

85) 전개

86) 島根県竹島問題研究會, 앞의 책, P 4.

‘도해 면허’가 반납된 것은 2월 9일임에 틀림없지만, 도해 금지령이 돛토리번의 성부(城府)에 전달된 것은 앞에 쓴 바 이 해 8월이었다. 따라서 이 해의 봄 시점에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은 도해 금지령을 모른 채 예년처럼 도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해에 만약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면 그런 중대사는 안용복 등이 오키국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취조 기록인 「무라카미 가문 문서(村上家文書)」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무라카미 가문 문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충실히 기록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거기에 일본인과 만났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의 형편을 감안할 때, 이 해의 출어는 곤란했을 것 같다. 1692년 이래 4년 연속해 다케시마에서의 수확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695년에 도해할 자금을 돛토리번으로부터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했다.⁸⁷⁾ 그 전까지는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은 돛토리번으로부터 종종 도해자금으로서 은 10kg 정도를 빌렸었다. 그 해는 아마도 돛토리번이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움으로 거절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가문은 1695년에 도해했지만, 이 해도 역시 다케시마에 조선인이 와 있었으므로, 거의 수확이 없는 상태로 귀국했다.⁸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 가문의 재정 상태는 곤란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령 1696년에 도해했다고 하더라도, 섬에 조선인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확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696년에는 조선인 문제의 행방을 지켜보고 도해를 보류했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이 해에 안용복 등이 다케시마에서 일본인과 만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그 전년이라면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을 가능성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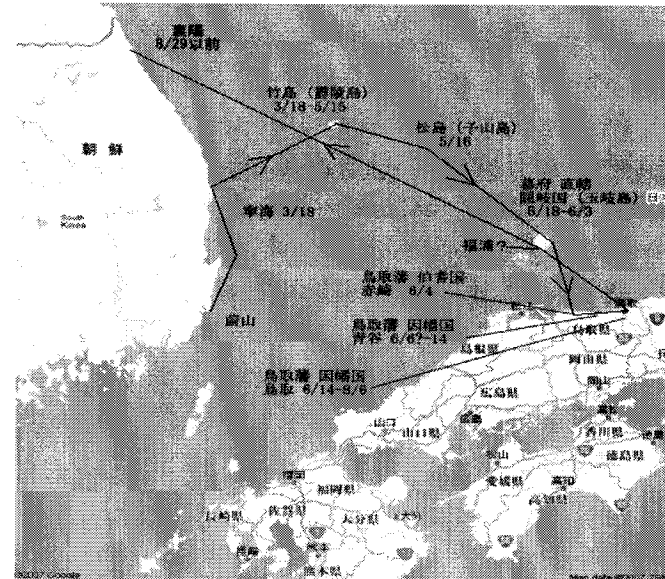
다. 그와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고찰하겠다.

(2) 오키국(隱岐國)으로의 도항

5월 15일에 안용복 등은 울릉도를 출발해, 마쓰시마를 거쳐 오키도로 갔다. 그 경위를 안용복은 귀국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⁸⁹⁾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해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도 받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했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판2. 안용복의 제2차 도일(1696년) 행적



87) 『控帳』元祿7(1694)年 11月 26日

88) 『竹島考』下卷, 및 『竹嶋之書附』

89) 『肅宗實錄』肅宗22(1696)年 9月 25日

안용복은 여기서도 3년 전의 ‘관백의 서계’에 대해 반복해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당시의 접위관 유집일의 견해는 이미 소개한 대로이다. 또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해 옥기도에 이르렀는데”라는 공술은 해금(海禁)의 죄를 추궁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공술한 것이다. ‘무라카미 가문 문서’는 안용복 등이 소송 목적으로 호키에 가는 도중에 오키도에 들렀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안용복이 말하기를, 자신이 타고 있던 배의 열 한 명은 호키국에 가서 돛토리의 호키노카미님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바람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 땅에 들렀습니다. 순풍이 부는 대로, 호키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

안용복과 도라베 두 명은 4년 전의 유년(酉年) 여름에, 다케시마에서 호키국의 배에 연행당했습니다. 그 토라베도 이번에 동행했습니다. 다만 다케시마에 남겨 두고 왔습니다.

5월 21일 안용복 등은 쌀이 떨어졌음을 오키 당국에 호소했다. 그 이유는 오키를 경유할 계획이 없었으나, 어쩔 수 없이 경유하게 되었으므로 식료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안용복에게 마을의 쇼야(庄屋)가 쌀을 주었는데, 그 때에 쇼야는 소송 목적에 대해 적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용복은 일단은 양해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거부하고, 호키국에 가서 자세한 것을 말할 테니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말아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22일에 그들은 배에서는 흔들려서 글을 적을 수 없으므로 상륙해 농가를 빌려 배 안에서 적어 두었던 것을 ‘소송 1권’으로서 정리했다. 그 내용은 안용복 등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그려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를 지참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것이 다음 ‘무라카미 가문 문서’의 내용에서 짐작된다.

1. 안용복이 말하기를, 다케시마를 대나무섬이라고 하며 조선

국 강원도 동래부 내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팔도지도에 적어 갖고 있습니다.

1. 마쓰시마는 같은 도내에 자산(子山)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둘 다 팔도지도에 쓰여져 있습니다.

안용복은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위치에 대해 “다케시마와 조선 사이는 30리(120km),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사이는 50리(200km)”라고 말했으므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일컫는 것임에 틀림없다.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 기술된 내용은 5월 23일에 끝났지만, 이 사료의 의의를 나이트우 세이츄는 “안용복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의 영토라고 일본 측에 주장했다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것은 『조선실록』 등의 한국 측 사료가 아닌 오키에서의 이 문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 했다.⁹⁰⁾

(3) 돛토리번(鳥取藩)으로의 도향

오키국에 조선의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오키국을 다스리는 대이칸(代官)의 데다이(手代, 수하)로부터 돛토리번에 6월 5일에 전달되었다.⁹¹⁾ 조선의 배가 호키국에 청이 있어서 도해했다고 하므로,⁹²⁾ 돛토리번은 서둘러 메쓰케(目付, 감찰관)인 히라이 킨자에몬(平井金左衛門)과 고오리 부교(郡奉行), 총무를 맡은 야마자키 슈마(山崎主馬) 등을 불러 모아 대책을 협의했다.⁹³⁾ 동시에 번주가 체재하는 에도의 돛토리번저에게도 파발꾼을 시켜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번주는 막부에 그 취지를 쓴 구상서를 13일에 전했다.⁹⁴⁾

90) 内藤正中·朴炳涉, 앞의 책, 2007, P290

91) 『控帳』 元祿9(1696)年6月5日

92) 『御用人日記』 元祿9(1696)年6月13日

93) 『控帳』 元祿9(1696)年6月5日

94) 『御用人日記』 元祿9(1696)年6月13日

그 사이에 오키도를 출발 한 안용복 등은 6월 4일에 호키국의 아카자키(赤崎)에 나타나서 동쪽을 향했다. 돛토리번에서 급파된 야마자키 슈마(山崎主馬)는 이나바국의 나가오바나(長尾鼻)에서 조선의 배를 만나, 그 배를 아오야(靑屋)마을에 끌어들였다. 그 때에 안용복 등은 배에 깃발을 달고 있었다. 아오야 마을의 주민이 깃발에 적힌 내용을 옮겨 적어 “조울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朝鬱兩島 監稅將 臣 安同知 騎)” 라고 기록했다.⁹⁵⁾ 『이나바지(因藩志)』는 “조울 양도는 울릉도 [일본에서 이것을 다케시마라 칭한다.]우산도 [일본에서 마쓰시마라 칭한다.]” 라고 해석해 기록하고 있다. 또 ‘우산도’ 옆에 ‘우사무수무’ 라는 토가 쓰여 있었지만, 앞의 ‘무라카미 가문 문서’에서는 ‘자산’의 옆에 ‘소우산’이라는 토가 쓰여 있었다. 한편 『숙종실록』에 안용복의 공술에 ‘자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안용복은 독도를 자산도라고 불렀다고 생각 된다.

아오야(靑屋) 마을에 정박 중인 안용복 등과 돛토리번의 히라이킨자에몬은 만났으나, 그는 조선인과는 통역이 없어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⁹⁶⁾ 그러나 안용복은 오키국을 다스리는 다이칸의 데다이와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했으므로,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하는 보고는 이상하다. 사실은 안용복 등은 아오야에서 주민과도 교류해 花田 李進士(이인성)가 마을 사람들에게 8장의 휘호(揮毫)를 써준 사실도 있었다.⁹⁷⁾ 히라이킨자에몬과 대화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후일 에도 돛토리번저의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가 쓰시마번에 “안히차쿠(안용복)는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일본어도 대체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⁹⁸⁾ 돛토리번은 막부에 표면상 조선인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했으므로, 공문서에서는 그렇게 기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돛토리번은 다음에 유자(儒者)인 쓰지 반안(辻晩庵)을 파견했다. 그는 센넨지(千念寺)에서 안용복 등과 대담했다. 일설에 쓰지는 필담을 했다고 한다.⁹⁹⁾ 쓰지는 조선인의 목적에 대해 “다케시마의 소송이 목적인 것처럼은 들리지 않았다.” 고 번에게 보고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의문이다. 그 동안 배에 있는 소지품이 조사되어, 그 기록이 에도 막부에게 보내졌다.¹⁰⁰⁾ 그 문서를 보낼 때 안용복 등이 오키도에서 적은 ‘소송 1권’도 에도에 보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1권’이 아오야에서 내놓은 것인지 어떤지는 기록이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다. 이 ‘소송 1권’은 『숙종실록』에 적힌 정단(呈單)으로 보여진다. 안용복이 돛토리번에 정문(呈文)한 일이 조정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 『숙종실록』은 영부사 남구만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¹⁰¹⁾

영부사 남구만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호키슈(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쓰시마번을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쓰시마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라마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호키슈에 가서 정문(呈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事端)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쓰시마의 왜인이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거짓 칭하고, 에도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이 정문한 것은 쓰시마번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1697년 2월에 쓰시마번은 동래부에 “작년 겨울에 귀국 사람이 단자(單

95) 『因藩志』, 『竹島考』, 『因府歷年大雜集』

96) 『御用人日記』元祿9(1696)年 6月 22日

97) 『伯耆志』

98) 『竹島紀事』元祿9(1696)年 6月 23日

99) 岡島正義, 『竹島考』, 下卷

100) 『御用人日記』元祿9(1696)年 6月 22日

101) 『肅宗實錄』肅宗22(1696)年 10月 13日

子)를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¹⁰²⁾ 안용복이 정서(呈書)를 제출한 일은 에도 막부로부터 쓰시마번에 알려진 것 같다. 다만 정서의 내용은 『속중실록』이나 『다케시마 기사』에도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질문에 대해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溍)는 다음 해 3월의 회답서에서 “그 정서는 참으로 망작(妄作)의 죄가 있다.” 라고 회답했다.¹⁰³⁾ 가령 안용복의 공이 있더라도, 외교상 쓰시마번에게는 표풍우민(漂風愚民)이 한 것이며, 조정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조선인이 호키번에 왔다는 소식은 6월 22일에 에도의 돛토리 번 저로부터 로우주우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에게 전해졌다. 다음날 오쿠보가 쓰시마번의 어린 번주인 소우 지로우(宗次郎)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이 때 오쿠보는 조선인이 이나바에 소송을 위해 왔다고 하면 이나바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오쿠보는 쓰시마번에게 돛토리번에 의하면 조선인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했으므로, 바로 통역을 돛토리번으로 보내길 바란다고 의뢰했다. 쓰시마번은 상세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루수이(留守居)인 수주키 한베에(鈴木半兵衛)가 돛토리번 기키야쿠(聞役)인 요시다 헤이마(吉田平馬)를 만나, 다음의 내용을 알아냈다.¹⁰⁴⁾

오키국에서 조선인 열 한 명이 배 한 척을 타고 와, 6월 4일에 호키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의 다섯 명은 출가한 사람입니다. 호키에 있는 가로우가 이나바에 서둘러 전달해 왔습니다. 선대 때부터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고 나가카시 부교우 관아에 보내도록 명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나바에 갈 필요가 없다고 들려주자, 화를 내며 장대로 여기 있는 자를 때려 놓히고, 다케시마에는 우리보다도 먼저 온 조선의 배가 30척 정도 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5월에 조선인을 이나바에 남겨 두었습니다. 열 한 명 중 예전에 다케시마에 온

적이 있는 안히차쿠는 모든 사정을 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일본어도 대체로 가능합니다.

소송에 관해서는 그 쪽에 관련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가노카미님에게는 당신네들의 일은 말하기 어려우므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가가노카미님이 생각하기를 필답이라면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필답은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시기에, 필답을 했다면 소송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필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당신네들의 일이므로 모쪼록 이나바에 역관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안히차쿠가 다케시마에 왔을 때 그쪽 지방이나 조선에서 숙박 당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쪽의 일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주키 한베에는 아직껏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므로, 앞으로 조선인이 돛토리 관아에 오는 대로, 그리고 외국의 배에 대해 선대에 주신 봉서(奉書)를 옮겨 적게 해주십사 청하고, 돌아왔습니다.

돛토리번은 안용복 등의 소송목적을 다케시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쓰시마번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고 있으나, 돛토리번이 소송은 나가사키만으로 한정한다는 자세를 시종일관 취했다고 한다면, 쓰시마번에 대해서는 체면상 안용복의 소송내용을 듣지 않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돛토리번은 3년 전 선대의 번주인 이케다 미쓰나카(池田光伸)의 시대, 안용복을 연행한 사건에 대해 로우주우인 오쿠보 가가노카미부터 ‘이국(異國)의 배에 관한 규정의 봉서’를 받고 있었다.¹⁰⁵⁾ 쓰시마번이 옮겨 적은 봉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쓰시마번에서 소우 요시자네는 소송목적은 “예전에 다케시마에 왔던 안히차쿠라는 사람이 타고 왔다고 하므로 틀림없이 다케시마에 관한 소송일 것이다”고 상정하고 있었다.¹⁰⁶⁾

한편 돛토리번에서 안용복은 쓰시마번과 부산의 왜관에서 결박당한 일 등을 말한 듯하지만, 쓰시마번의 행실을 밝히는 것도 소

102) 전계, 肅宗23(1697)年 2月 14日

103) 『竹島紀事』元祿11(1698)年 4月

104) 전계, 元祿9(1696)年 6月 23日

105) 『御用人日記』元祿6(1693)年 6月 29日

106) 『竹島紀事』元祿9(1696)年 7月 7日

송의 목적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소송의 본래의 목적은 배의 깃발에 적혀 있던 ‘조울 양도 감세장’ 이란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울릉도와 자산도는 조선의 영토임을 알리고, 쓰시마번이 두 섬을 일본의 지배 아래에 두려는 계획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조선을 출항하기 전에 「조선팔도지도」를 준비하고, 출발할 때 지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서술하겠다.

6월 14일에 안용복 등은 야마자키 슈마 등에 의해 아오야로부터 가로(加路, 賀露) 도젠지(東禪寺)에 옮겨졌다.¹⁰⁷⁾ 그러나 로우주우 오쿠보 가가노카미는 그들을 도젠지에 두는 것을 “소용없는 일”이라 하여 금하고, 배 안에서 머물도록 지시했다.¹⁰⁸⁾ 그러나 그 지시가 돛토리성부에 전달되는 사이에 돛토리번은 안용복 등을 조선국의 사자로서의 대우를 하며 돛토리성하의 조회소(町會所)에서 접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을 『다케시마 고(竹島考)』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국 사자의 배(使船)을 본 번(本藩)으로 통하다

겐로쿠(元祿) 9년 6월 4일, 호키국 아카자키나다(赤崎灘)에 조선의 배가 도착했다. …… 6월 21일에 전마(傳馬) 9마리를 보내고, 토다 이치우에몬(戶田市右工門), 마키노 이치로우에몬(牧野市郎右工門), 오카지마 도우베에(岡嶋藤兵衛)가 가는 길을 경고했으며, 외국 손님들을 본부(本府)의 정회소(町會所)에 두고, 머물러 있는 동안의 접대를 우바라 덴고베에(羽原轉五兵衛)에게 명했다.

한편 안용복 등을 조선의 사자로서 대접했다는 기록은 번의 공식기록에서는 볼 수 없다. 『다케시마 고』의 기술이 옳다면, 돛토리번은 로우주우의 지시에 어긋나는 대접을 했을 뿐 아니라, 안용복의 복장과 관명 사칭에 속아 조선의 사자로 착각한 것이 되므로 그러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두었을 리가 없다고 보인다.

얼마 되지 않아 로우주우의 “조선인을 절에 두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지시가 현지에 전달되어, 그들의 배를 고야마(子山, 湖山)호수로 끌어 들여 안용복 등을 호수 안의 아오시마(靑島)에 가두었다. 7월 22일에 와다 세베에(和田瀨兵衛)가 고야마 호수에 있는 조선인의 작회인(作廻人)을 명령 받았으므로,¹⁰⁹⁾ 이 때에 안용복 등은 코야마 호수로 끌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 3일전에는 에도에 체재하고 있던 번주 이케다 츠나키요(池田綱清)가 돛토리부에 귀국했다. 번주는 에도 체재 중에 로우주우로부터 조선인을 추방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간혀 있던 안용복 등과 만난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막부는 조선인을 추방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나 방침을 바꿨다. 처음에는 이나바에서 조선인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로우주우 오오쿠보도 다음날 24일에는 생각을 바꾸었다. 모든 소송은 나가사키 부교우가 다루므로 조선인을 나가사키로 보낼 것, 만약에 나가사키에 가지 않는다면 돌려 보내라는 지시를 돛토리번의 요시다 헤이마와 나가사키번의 수주키 한베에(鈴木半兵衛), 두 사람에게 전했다.¹¹⁰⁾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안용복 등을 직접 추방시킬 것을 로우주우에게 진언했다. 그 이유가 『다케시마 기사』에 기술되어 있는데,¹¹¹⁾ 그것을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¹¹²⁾

(조선인이) 이나바를 향해 도해해 온 것과, 몇 해 전에 다케시마(울릉도)에 왔던 안히차쿠(안용복)가 일행 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의 도항목적은 ‘다케시마의 소송’ 인지도 모르겠다(a). 이미 조선측이 납득 할만한 일본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막부 명령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여기서 안용복의 소송이 다케시마 일건에 관계된 것이고, 그런 소송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조선측은 일본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09) 『控帳』元祿9(1696)年7月22日, 및 『御用人日記』元祿9(1696)年7月22日

110) 『竹島紀事』元祿9(1696)年6月23日

111) 전계, 元祿9(1696)年7月7日

112) 池內敏, 앞의 책, P311, 다만 방선부의 원문은 생략함.

107) 『控帳』元祿9(1696)年6月14日

108) 『御用人日記』元祿9(1696)年6月22日

을 안용복의 소송 행위에 의해 이긴것으로 오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조(日朝)간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너와 소송을 일으켜 해결하려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다(b). 그렇게 되면 일조간을 증계하는 쓰시마번의 존재 의의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c). 조선에서 일본에 무슨 용건이 있을 경우에는 쓰시마번을 통해야 하고, 다른 나라(번)에는 직접 거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번)에 소송하는 등의 예는 여태까지 없었다(d). 본래 용건이 있을 때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으로 되어 있는 쓰시마번에 말 한마다 없이 직접 다른 곳(돛토리번)에 소송을 하는 등의 행위가 이번에 인정된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전례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는 쓰시마번에 큰 문제가 된다(e).

따라서 안용복 일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다. 먼저 소송을 듣지 말고 돛토리번 영토로부터 바로 돌아가게 할 것(제1안 f).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나가사키 부교우 관아로 보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본국에 송환하도록 권장할 것(제2안g). 소송을 듣지 않을 수 없다면 쓰시마번의 이테이안(以厶庵) 입회하에 듣고, 막부에 보고할 것(제3안h).

7월 24일에 로우주우는 쓰시마번의 제1안을 받아들여 안용복 등을 직접 돌려보내도록 돛토리번에 최종 지시했다.¹¹³⁾ 이에 따라 안용복 등은 8월 6일에 가로에서 추방 당했다. 그 후 쓰시마번의 통역이 돛토리번에 도착했으나, 조선인이 떠난 뒤였으므로 그대로 돌아갔다.¹¹⁴⁾

그 후 안용복 등은 강원도의 양양현(襄陽縣)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8월29일 강원감사로부터 조정에 들어왔다.¹¹⁵⁾ 안용복 등이 가로를 출발해 23일 후의 일이다. 그 사이에 안용복 등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오키도의 후쿠우라(福浦)에 들렀다고 한다. 야다 다카마사(矢田高當) 『장생

다케시마기(長生竹島記)』에 의하면 “이 섬으로부터 8년째 아벤테후 토라헤 비리를 바로잡아 인슈에 다시금 도해한 일”이라는 구절에 외국인이 조선을 가르키고 돌아갔다는 기술이 있다. 이 구절에 기술된 ‘이 섬’이란 다케시마이며, ‘아벤테후’란 안용복, ‘토라헤’란 박어둔을 말한다. 이 구절에서 안용복과 오키도민과의 이별을 “외국인도 서운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리고 조선으로 돌아갔다. 건디기 힘든 이별이었다.” 라고 표현했다. 다만 이 문서는 신뢰성이 매우 낮으므로 그 기술은 곧 믿기는 어렵다.

안용복이 귀국한 후 조정에서 그가 지른 죄가 문제 되었다. 사헌부(司憲府)는 안용복을 주살(誅殺)할 것을 왕에게 요청했으나,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처단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 이유는 쓰시마가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해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켰다고 말했으니, 이는 대체로 안용복의 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안용복은 죽음을 면하고 유배되었다.¹¹⁶⁾

(4) 안용복 제2차 도일의 목적

안용복은 왜 1693년에 연행 되었다가 3년이나 지나서 도일했을까? 그 때 안용복의 소송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이와 관련해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무라카미 가문 문서’의 분석과 다른 역사자료와의 비교 및 검토에 의거해 본다면, 안용복의 소송 목적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영토로 주장한다”는 데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적(1,7,9)¹¹⁷⁾은 사료의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해당 사료를 둘러싼

116) 전계, 肅宗23(1697)3月27日

117) 指摘(1), 內藤正中, 『隱岐の安龍福』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2號, 2005

指摘(7), 下條正男, 『フォトしまね』 161號

指摘(9), 김병렬, 「안용복을 위한 해명」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 디아, 2006

113) 『御用人日記』 元祿9(1696)年7月7日

114) 전계, 元祿9(1696)年8月18日

115) 『肅宗實錄』 肅宗22(1696)8月29日

전체적인 역사적 사실로부터 떼어내어 상상을 부풀린 결과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용복 등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기재한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해, 그것도 첫 대담(對談)에서 먼저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겐로쿠 6년에 다케시마에서 포박(捕縛)되어 오키를 경유해 돛토리번으로 연행된 안용복은 돛토리번에서는 여러 가지의 옷이나 장신구등을 지급받는 등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쓰시마번으로 인계되자 냉대를 받게 된다. 그러한 냉대를 받았던 사실을 돛토리번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한 당사자임을 돛토리번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 다케시마에서 포박되어 마쓰시마와 오키를 거쳐 돛토리번의 요나고에 연행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개시(開示)”는 당시의 상황으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산인(山陰)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섬 이름=마쓰시마와 실제로 자신이 포박되었던 섬=다케시마가 기재된 ‘조선팔도지도’를 지참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서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¹¹⁸⁾

이케우치는 안용복의 소송 목적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며, 쓰시마번에서 “냉대를 받았던 사실을 돛토리번에 호소하기 위해”라고 하나, 이것은 의문이다. 단순히 냉대를 받았던 사실만을 호소하는 목적만으로 중대한 죄인 해금을 범하면서까지 일본에 갈 수 있을까? 보통 개인적인 원한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는 법인데, 안용복이 쓰시마번에서 냉대받고 3년이나 지난 후에 원한을 호소하기 위해 중죄를 각오하면서까지 도일을 결의했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약하다고 본다.

더욱 의문이 가는 점은 이케우치는 무라카미 가문의 문서와 다른 사료와의 비교 및 검토로부터 상기의 추론을 이끌어 냈다고 하나, 그 ‘다른 사료’에 조선의 사료가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밝혀 있지 않다. 안용복의 의도와 도일 목적이 『동국문헌비고』에 조금일지언정 기록되어 있지만, 그에 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동국문헌비고』에는 안용복 나름대로의 의분(義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693년에) 안용복이 쓰시마번에 호송되었을 때, 대마도주는 관백(關白)의 명령을 위조해 몇 번이나 울릉도를 다투어 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관백의 뜻이 아니었다. 쓰시마는 울릉도가 어(魚)와 죽(竹)이 풍부하므로 그것을 가지는 것이 이롭고 또 차왜가 조선에 오면 그를 매우 후하게 대우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왕래가 그치지 않았다. 최근에 안용복이 그 간계(奸計)를 모두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안용복을 오랫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동래로 압송했다. 또 왜관에도 갇혔는데, 전후 90일 만에 비로소 풀려났다.

안용복은 동래부사에게 보고했으나 결국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 해, 접위관이 동래에 오자, 안용복은 다시 이전의 일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정 역시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 때 차왜가 누차(동래에) 왔었는데, 만약 장래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틈이 생겨도 사람들은 이를 염려할 뿐, 쓰시마번이 기만한 바를 알 리가 없다.

안용복은 이처럼 자신을 오랫동안 감금시킨 쓰시마번에 대한 원한과, 그가 말하는 쓰시마번의 기만, 즉 막부의 명령인 척하며 해산물이 풍부한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을 가져온 쓰시마번의 계획에 의분을 가졌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공술을 신용하지 않았던 접위관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의분이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사라져가는 법이다. 그런데도 사건으로부터 3년이나 지난 후에 불만과 의분을 풀기 위해 도일했다는 것은 그 3년 사이에 원한이나 의분을 되살리거나 더욱 쌓이게 하는 새로운 사건이 있어서 중대한 결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시 고찰하겠다.

5. 결론

118) 池內敏, 앞의 논문, P9

(1) 가설: 안용복의 울릉도 도항은 3회 이상임

안용복이 중대한 해금의 죄를 범하면서까지 일본으로 도항한 것은 제1차 도일 이후 그에 상응할 만한 중대사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사건의 가능성으로서 필자는 안용복이 1695년에도 울릉도에 가서 그것에서 일본인을 만나지 않았을까하는 가설을 세워본다. 그 만남으로 인해 안용복은 마음속에 쌓여 있던 원한과 의분이 강하게 상기되어 다음해에 도일하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안용복이 1695년에 울릉도로 도항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 도항하지 않았다는 상황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안용복의 1694년부터 1695년까지의 행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저 1694년 8월 14일에 임명이 결정된 접위관 유집일의 심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한편 일본의 신뢰 할 수 있는 사료에 1695년에 많은 조선인이 울릉도로 도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돛토리번정 사료인 『다케시마노가키쓰케(竹島之書附)』는 1692년부터 95년까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상황을 막부에 보고했는데, 그 중에서 겐로쿠 7(1694)년과 다음 해에 관해 “겐로쿠7(갑술년)과 겐로쿠8(을해년)인 두 해에 다케시마로 도항했지만, 조선인이 많이 있었으므로 어렵게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기록했다.¹¹⁹⁾ 이 사료를 고려하면 겐로쿠 5년부터 9년까지 5년 연속 조선인이 울릉도로 도해한 셈이 된다. 또 돛토리번사인 오카지마가 정리한 『다케시마 고』에서도 겐로쿠 7년과 8년 모두 조선인이 도해해 있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막부, 다케시마로의 도해를 금지한다.

오야·무라카와는 겐로쿠 5년부터, 조선인 때문에 본업을 방해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를 자주 한탄하고 호소했다. 번의 지시를

받고 겐로쿠 7년과 8년에 배를 다케시마로 보냈으나, 조선인이 먼저 건너와 있었으며,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하여, 후에는 이 쪽에 30명, 저 쪽에 50명의 무리가 형성되어, 방어를 엄중히 하고 있으니, 만약 이쪽의 배를 억지로 착륙할 때에는 큰 일을 피할 수 없을 듯싶어, 어쩔 수 없이 후퇴하고…….

이처럼 4년 연속으로 많은 조선인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1694년에 한해서는 『히카에초우(控帳)』에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가 다케시마로 도해하던 중 거친 바람을 만나, 도중에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¹²⁰⁾ 따라서 그 해는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은 다케시마(울릉도)에 당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편 1695년의 도해에 대해 『히카에초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전년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문은 돛토리번을 상대로 다케시마에 만약 “조선인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돛토리번에서는 “조선인이 있을 때의 대처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대답했다.¹²¹⁾ 이러한 대화로부터 미루어 보면,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이 다케시마에서 조선인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돛토리번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고했다 하더라도, 돛토리번이 『히카에초우』에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여간 『다케시마노가키쓰케』에서 볼 수 있듯이 돛토리번은 그 해에도 도해했다고 막부에 보고했다. 다른 한편으로 『다케시마고』는 96년에 막부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무렵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다케시마에서 조선인들이 이쪽의 배를 보기만 하면, 큰 총을 쏘 대어, 해안 근처에는 갈 수가 없다고들 한다.

119) 『竹島之書附』 ‘竹島之書附三通, その二’

120) 『控帳』 元祿7(1694)年 5月 9日

121) 전계, 元祿7(1694)年 11月 26日

이 속담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1693년에 조선 어민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아마 총칼로 위협받아 일본의 배에 연행된 씁쓸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상당히 경계를 하며 일본배의 습격에 대비하고 무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시기는 위에 쓴 바로 1694년이 아니라 1695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해에 안용복이 울릉도에 있었을 가능성은 다음의 상황에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1696년에 안용복과 함께 출어했던 뇌헌도 역시 귀국후에 비변사에서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지지했다. 『속중실록』에는 “뇌헌 등 다른 사람의 공술 역시 대체로 똑 같았다.” 라고 기록되었다.¹²²⁾ 물론 뇌헌은 그것을 1696년의 일로 공술했겠지만, 당시의 해금정책이 실시되고 있던 때이므로, 만일 1695년에 도해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새로운 죄를 인정하는 듯한 자백은 하지 않고 1696년의 일로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어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696년에 안용복 등이 오키도에 갔을 때에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자산도라고 말했으며, 두 섬사이의 거리나 자산도와 오키도 사이의 거리 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1693년에 안용복이 연행되었을 때는 나가사키 부교우 관아와 쓰시마번에서의 공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우산도에 대한 인식은 확실하지 않았다. 귀국 후에 그가 접위관에게 공술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언급했듯이 『변례집요』에서 안용복은 자기가 본 섬을 다만 ‘큰 섬’ 이라고 했을 뿐, 그 섬의 이름을 모르는 것 같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94년의 단계에서는 안용복은 아직 마쓰시마나 자산도의 이름을 몰랐던 것 같다. 두 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1695년의 도해에서 일본인과 만나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맞고 96년에 자산도가 마쓰시마라는 그의 확고한 인식이 비로소 이해된다.

아마 안용복은 1695년에 출어하여 일본인이 울릉도에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일본인이 조선영토에 끊임없이 도항하는 것을 어떻게

든 막아보려고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일본인의 끊임없는 도항은 안용복의 입장에서 보면 쓰시마번의 ‘기만’ 과 ‘계책’ 이 계속된 결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 때문에 쓰시마번에 대한 의분이 더 쌓여, 돛토리번 혹은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에 관한 소송을 일으킬 결의를 하고 ‘조선팔도지도’ 등을 준비하여, 다음해에 실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필자의 가설은,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을 내쫓았다는 안용복의 진술은 1696년이 아닌 1695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696년에 관해서는,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무라카미 가문 문서’ 에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는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선 역사서의 신뢰성

1695년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다고 한다면, 그의 제2차 도일사건에 관한 공술은 굉장히 진실성이 있으므로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2차 도일사건에 관해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안용복의 공술에 대해 “함부로 장담하는 경향은 있지만 대체로 사실일 수 있다” 라고 썼다.¹²³⁾ 분명히 안용복의 공술 곳곳에 그의 독특한 호언장담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변사에서 “(자신이) 여기(일본)에 와서 울릉도와 자산도를 조선 땅으로 했으며 관백의 서계까지 받았다” 고 말한 것 등이다.¹²⁴⁾ 그러나 실제로 사태의 추이는 안용복의 호언장담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전개되었다. 안용복의 도일이 계기가 되어, 에도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고 그것을 쓰시마번이 조선에게 전달했다. 그 결과 ‘다케시마 일전’ 교섭은 조선에게 바람직한 결과로 끝났다. 그 숨은 공로자로

122) 『肅宗實錄』 肅宗22(1696)年 9月 25日

123) 田保橋潔 ‘鬱陵島その發見と領有’ 『靑丘學叢』 第3號, 1931, P20

124) 『肅宗實錄』 肅宗22(1696)年9月25日

서 안용복이 조정에서 인정받았고, 그의 공술도 신뢰받기 시작해 이후의 사서에 사실인 것처럼 기술되었다. 특히 후대의 관찬서인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 등은 위와 같은 호언장담을 거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안용복의 제2차 도일사건 뿐만 아니라 제1차 도일사건 때의 안용복의 공술마저 거의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그 후에 안용복 사건을 기록한 관찬서인 『숙종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변례집요』 등은 그 때마다 안용복의 공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기술했으므로, 안용복의 장담을 비교적 잘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러한 판단은 쓰시마번과의 어려운 교섭을 수행하는데 필수 작업이었다. 만약 그 판단에 잘못이 생기면, 그것은 그대로 외교교섭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예의 하나가 제1차 도일 시에 안용복이 에도로 갔다는 공술이다. 이미 쓴 바와 같이 안용복은 여러 상황에서 이나바국을 에도로 착각했는데, 그것이 발전하여 조정에서 ‘쓰시마번의 계책’을 믿게 되었고, 강경한 노선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일건 이외에는 『숙종실록』의 기술에 큰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다. 『숙종실록』은 안용복의 공술을 그대로 적었지만, 그것을 무조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진위를 가렸던 것이다. 『숙종실록』 이외에도 안용복사건과 동시대의 관찬서는 안용복 사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한편 후대 관찬서인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는 안용복이 에도로 갔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 기술이 없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아마 이 서적 등은 안용복이 에도로 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숙종실록』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관찬 역사서는 입장일단이므로 신중한 문헌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문서를 읽을 때의 철칙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하여간 안용복이 주장한 울릉도 (다케시마) 및 자산도 (마쓰시마)는 조선 영토라는 인식이 관찬 역사서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앞의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

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倭)가 이른 바 송도(松島)다.” 라고 기록되었다. 그 후 이 인식은 『만기요람』이나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승되어, 오늘날의 독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Ahn Yong-bok Event and Tottori-han

Park, Byung-seob

This paper will review and assess the materials in Korea and Japan concerning Ahn Yong-bok sailing to Japan an event in the period of Japan Genroku era. Ahn Yong-bok event was assessed very differently by both countries, which I will verify the problem of Ahn Yong-bok study and the derived event of Takeshima-ikken.

There is possibility of Ahn Yong-bok visit to Ulleungdo more than 3 times after his first sail to Japan. That is, experiencing arrest and kidnap by Japanese fishermen at the 1st sail to Japan, he might have prepared quite a good arms and ready for the attack by Japanese ship in 1694~5 at Ulleungdo. At his statement of the first sail to Japan in 1693, he only explained about large islands because of lack of Dokdo=Jasando recognition, but he correctly recognized exact location and distance of the two island of Ulleungdo-Dokdo at his second sail to Japan in 1696. This recognition should had been attained by several experiences of sail to Ulleungdo-Dokdo after his 1st visit. Also, it was assumed that the time when Ahn Yong-bok expelled Japanese fishers at Ulleungdo as stated was not in 1696 but 1695.

To reconsider the credibility of Choseon historical record which describe Ahn Yong-bok's statements in *Chungwanji*, or *Dongkuk-munheon-bigo*, etc., and describe the Ahn Yong-bok's big mouth of the statement as truth. However, on the contrary, government published *Sukjong-Silrok*, *Bibyeonsa-Deungrok*, *Diary of Seungjeungwon*, *Byeonrae-jipyo*

etc. described Ahn Yong-bok's statement under analysis, and grasped the intention of Ahn Yong-bok. This judgement should be essential for the negotiation with Tsushima Administration in a difficult situation. *Sukjong-Silrok* and the other government published books at the era are credible because the record was described about Ahn Yong-bok event in as much possible as objective view point.

Key words: Ahn Yong-bok event, Takeshima-ikken,
The Genroku era, Tottori-han

이 논문은 2009년 4월 5일에 발표하여
2009년 6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6월 31일 간행함